朝鮮日報
夕刊 二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毛澤東、朱德連名 國府에合作提議

『內爭을停止、平和會議開催코 抗日共同戰線結成하라』

【上海發電】國內戰爭을 即時停止하고 平和會議를 開하야 日本의 對中工作에 共同戰線을펴라는 可驚할 提議가 朱毛共產軍으로 有名한 毛澤東、朱德으로부터 南京政府、軍事委員會、陸海空軍將校及 各軍隊、各團體、新聞社等에 五月五日付로 通告해온것이 明白하게되어 各方面에센세이슌을 捲起하고잇다。그리고右通告中 新聞社로 보낸것은 謄寫版印刷로 昨廿五日新配達된것도잇다고한다。右通告는 前記와가티 中國소비에트政府主席 毛澤東 紅軍及革命軍總司令朱德의 聯名으로 發한것인데 그內容은 共產軍의 山西侵入은 日本軍의 侵略에 低抗하기爲함이었다。그런데 南京政府는 共產軍의 北中進出을 阻止하려 如한 態度를 取하였다 라고 中央軍의 山西進入及 閻錫山軍과의 共同討伐을 攻擊하고 이어서 吾人은 全軍을 一個月동안에 될수잇는대로 武器로 裝備하야 抗日共同戰線을 펴려고한다 고 述하고 最後로 吾人은 南京軍과의사이에 即時 休戰하고 平和會議를 開하야 抗日을爲한 共同戰線을 펼것을 提唱한다 고 結論하였다고한다。昨年에行한 第七次國際共產黨大會決議等으로 보아 今回의提議는 同決議를 實行에 옮긴것이라고 注目하고 이에對한 南京政府의態度도 興味로서 보고잇다。(寫眞은 毛澤東氏)

陝北共軍討伐코저 總攻擊을開始!

蘭州、寧夏會議開催코包圍陣結成

張學良、討共에積極進出

【上海發電】陳誠 楊虎城 朱紹光等을 거느리고 去二十五日蘭州에 飛去하야 剿共會議를 開한 張學良氏는 二十六日 다시 寧夏에 飛去하야 同省主席 馬鴻賓과 會見하고 剿共에關하야 重要協議를하였다。陝北共產軍에對한 三方包圍의 作戰은 略緖에 就하엿스므로 張學良氏 一行은 다시 二十七日 軍機로 부터綏德에 飛去하야 高桂滋와 會見協議하고 午後三時三十五分 綏德으로부터 太原에 到着하야 山西側要人의 出迎을받고 即時 閻錫山氏와 陝西共軍討伐에 關하야 詳細히 協議하였다。今回張學良 陳誠 楊虎城 朱紹光氏等이 陝西共產軍을 包圍하는 各省 即 甘肅、寧夏、山西를 巡歷한것은 總攻擊을압두고 討伐陣營의 充分한 連絡協議를 한것으로 近近 陝北共產軍의 殲滅을 期하고 四方面으로부터 總攻擊을 開始할 것으로 보인다。張學良氏가 剿共에 比較的 積極態度를 取하게된것은 現在와가티 張學良軍과 共產軍이『不攻不進』의 態度를取하고잇서서는 共產軍의 新戰術인 抗日共同戰線의 『宣傳』에 滿洲의 追憶을 忘却치못하고 抗日氣分을가진 張學良軍이 漸次動搖하야 그中에는 共產軍에 投하는者도 出現하였슴으로 此際에 積極的으로 共軍을 討伐하야 內容動搖를 萌芽에 摘取하려는 意圖에 基한것이라고 觀測된다。

杉山元中將上海着

【上海一日發同盟】參謀本部付杉山元中將은 中國旅行을 終하야 一日午後三時半長崎丸으로 上海에到着하였다

前田鐵相歸京

【東京電話同盟】週末靜養次 熱海別邸에 赴하엿던 前田鐵相은 一日午後三時半 歸京하야 赤坂三河臺의自邸에 도라왓는데 感氣氣味이므로 一兩日辭務를 休할模樣이다

西康、湖北、福建等에서 共產軍一齊活躍

陝北本軍總攻擊牽制次

【上海發電】中國各地의 共產軍이 最近 아주活潑한 行動을開始한모양이다 이는 陝西北部의 共產軍基本部隊에對한 討伐軍의 總攻擊을 牽制하려는것가티보이는데 그槪況은 如左하다

▲西康共產軍=劉建緖의 報告에 依하면 賀龍蕭克의 共產軍은 定鄕、德榮으로부터 巴安、理化方面으로 朱德、徐向前의 共產軍은 甘孜、鑪霍、道孚方面에 集結하엿스며 一部는西康의 小金沙江 附近에서 合流하엿다 討伐軍은 四川、西康、湖南의 三軍이 相互連絡을 取하면서 堡壘를 構築하야 이에 備하고잇는데 別로 積極的討伐에 나설 氣味는 보이지안는다

▲湖北共產軍=湖北安徽省境方面의 共產軍의活動도 最近 頗히 活潑해저서 討伐軍은 神經을 날카로워하야 包圍淸掃에 努力中이나 如意한 成績을 나타내지 못햇다。共產軍第二十八軍의 宣傳科長象 代理政治委員 周發國은 討伐軍에게 逮捕되어 轉向하엿다는 旨를 中國紙는 報道하고잇스나 最近 湖北省境地區에서는 各處에 相當한 激戰을展開하고잇다고한다

▲福建共產軍=福建南部에 根據를둔 張承禍、張克武의 引率한共產軍은 仙德、西山軍에 集結하야 討伐軍과 激戰中이라

貴族院研究會 新常務委員決定

【東京電話同盟】貴族院研究會에서는 常務委員十名中 五名의任期가 滿了되엇스므로 一日午後一時 事務所에 評議會를 開하고 左記五氏를 推薦하기로 決定하엿다 右는 常務委員會의詮考를 要하므로 來八日까지에 決定하야 同日 新常務委員會를 開할豫定이다 그리고 評議員의 任期一個年도 滿了되엇스므로 八日 改選하기로되엇는데 常務委員은 就任한 大谷尊由 井上匡四郞 松平康春三氏의 補充外에는 全部 重任을 볼러이다 新常務委員은 如左하다

伯爵 兒玉秀雄·子爵 井上匡四郞 子爵 松平康春 大谷 尊由 松平胤吉

佛人民戰線內閣 新陣容遂整備

【巴里一日發電通】社會黨首領레옹·부룸氏는 一日夜 人民戰線內閣의 陣容을 決定하엿다고 傳하는데 그閣員은 如左하다

首相 레옹·부룸(社會黨代表)
無任所相 보올·폴(社會黨代表)
同 카미르·쇼탕(急進社會黨代表)
同 포올·보올
外相 레옹·델보스(急進社會黨)
內相 로제·사랑그로(社會黨)
陸相 에드와르·달라듸에(急進社會黨)
海相 세가르·칸피시(急進社會黨)
空相 피에르·코트(同上)
藏相 방장·레라오르(社會黨)
勞働相 장·르바(同上)
農相 몽냉(同上)
經濟產業貿易相 샤를르·스피낫스(同上)
植民相 마리우스·무테(同上)
法相 바이오레트(同上)
文相 아나투-르·몽지(同上)

墺首相羅馬에서 伊墺關係改善에努力

英獨兩國도訪問?

【維也納一日發同盟】墺太利首相 쓔슈닉博士는 一日午後七時 維也納을 出發하야 羅馬에 向하얏는데 首相은 베네치아에 數日間 滯在할 豫定인바 이동안 伊太利外務次官 수비치氏와 會見하고 內閣改造後의 國內情勢를 報告하야 諒解를 求하고 伊墺兩國關係의 改善에 努力할터이다 最初에 슈슈닉首相이 羅馬에 進出하야 直接 뭇솔리니首相과 會見하고 懇談을 遂하는外에 다시英、獨兩國도 訪問할 計劃이라는 報道가잇섯는데 墺太利政府는 一日正式으로 右報道를 否定하엿다

방 잘랑氏 再組閣을拜辭

【브랏셀一日發同盟】去二十四日行한 白耳義總選擧의結果 社會黨에 進出하엿기때문에 카톨릭黨出身 방 잘랑氏를 首班으로한 擧國一致內閣은 二十六日 一旦總辭表를 提出하엿는데 社會黨 카톨릭黨 自由黨은 모다依然擧國一致內閣을 要望하고잇는關係上 방 잘랑氏에게 組閣大命이 再降下하리라는 豫想이 有力하엿는데 國王레오폴드三世陛下는 一日 방 잘랑氏를 王宮에召하사 擧國一致內閣의 再組閣을 懇諭하시엇다 但 방 잘랑氏는 後繼內閣의 首班은 第一黨인 社會黨出身者가 되어야할것이라는 理由로 大命을 拜辭하야 時局은 이에 社會黨黨首 방데벨데氏를 首班으로 擁立한 內閣을 示하게되엇다

伊空軍動功者에 有功章授與

【羅馬三十一日發同盟】뭇솔리니首相은 三十一日午後 에디오피아遠征에 從軍하야 武勳이잇는 空軍諸將士에게 軍事有功章을 授與하고 체利飛行場에서 壯嚴한 授與式을 擧行하엿다 右勳章을 받은 將士中에는 뭇솔리니首相의 令息 부루노、빗토리오兩君外에 左의 諸氏가잇다 新聞宣傳相 차노氏 前파시스트黨書記長파리나치氏

墺太利政府 兵役年限制公表

【維也納一日發同盟】墺太利政府는 國際情勢에 鑑하야 去四月一日 산제르만條約을 破棄하고 聯邦徵兵制度를 決定하엿는데 政府는 一日附官報로써 兵役義務年限을 一年으로한다는 旨를 公表하엿다

一、軍人과 軍夫의 義務年限을 一年으로함

一、特殊隊員의 義務年限은 必要에 應하야 一年以上으로함

佛新議會開院式

【巴里一日發同盟】總選擧後의新議會開院式은 一日午後三時 擧行하고 慣例에 依하야 議員中의 最年長者 안토안느·사레-氏가 議長席에 올라 『이 第十六議會로 하여금 世界平和를 爲한 第一步를 내어드되게할지어다』라고 開院式辭를 述하고 午後三時三十分 開院式을 終了하엿다

人事·集會

▲咸錫泰氏(漢城齒科醫師會會長) 六月四日出發退活미 人事次來社
▲本多武夫氏(京畿道學務課長)新任人事次來社
▲大澤義誠氏(朝鮮聯合齒科醫師會會長)同上
▲朴鍾璜(醫學博士)·權寧禹(前與滿醫院)兩氏 府內寬勳洞四六(前與滿醫院)에서 開業
▲岡崎哲郞氏(前慶北知事)三日午後三時十分 京城驛着入京 市內竹添町一丁目廿二番地에住居
▲下村進氏(京畿道警察部長)新任人事次來社
▲金永祥氏(京城府社會課長)新任人事次來社

委任統治委員會 種族鬪爭問題檢討

【쥬네브一日發同盟】常設委任統治委員會는 二日午後 聯盟會館에서 開催하고 英國委任統治領 팔레스타인·트란스 조르단의 施政狀況에 關한 英國政府提出의 年報에 關하야 審議를 開始하엿는데 席上에서 팔레스타인 政廳代表 로라스레트氏는 亞剌比亞人과 猶太人과의 種族鬪爭에 關한 팔레스타인政廳의 方針을 說明하고 『팔레스타인地方騷擾는 아직 鎭靜되지 안엇스나 팔레스타인政廳은 同地方의 治安恢復을 期하고 이미 警察力을 增强하엿다』는 旨를 述하엿다 이어서 英國代表 루가-드卿은 英國政府의 善後方針에 關하야 말해가로되 英國政府는 終始一貫한 方針으로써 臨하여왓는데 今後도 右方針에 變動은업다 팔레스타인地方에서 治安이 恢復되는대로 政府는 調査委員會를 任命하야 現地에 派遣하야 騷動의 原因을 糾明하고 다시 亞剌比亞 猶太兩種族의 要求를 檢討할 方針이다

伊總動員斷行 全兵員百餘萬에

【羅馬一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十六日 伊에問題討議의 聯盟理事會와함께 全國에 亘하야 示威國民總動員을 斷行하기로되엇다 右總動員은 거의 陸軍全兵員百二十萬 以外에 豫備兵員六百八十萬의 一部와합게 參加할터이다 全國的 總動員의 目的은 聯盟理事會에서 伊太利에 對하야 强硬態度를 取하야 그것으로 因하야 마츰내 歐洲戰爭이 일어나지 안흘수 업게되더라도 斷然 에디오피아를 放棄치 안켓다는 强硬決意를 中外에 宣明함에잇다고 한다

伊太利閣議에서 東阿組織法承認

아디스아베바에中央政廳設置

全土를五區域으로分割

【羅馬一日發同盟】伊太利內閣은 一日午前十時부터 午後一時에 亘하야 前後三時間 閣議를 開하고 伊太利領東阿帝國組織基礎法案을 審議하엿는데 閣僚一致로써 原案을 承認하게되엇다 法案要旨는 如左하다

一、地理的、歷史的諸關係에 則하야 伊太利領東阿地域을 五地方에 分割하야 各地方에地方政廳을 置함

一、右地方政廳의 統轄機關으로 伊太利領東阿帝國中央政廳을 아디스아베바에 置하고 總督一名을 任命함

一、따로 總督의 諮問機關으로 二個의 評議委員會를 任命함 右諮問機關의 第一은 政府評議委員會 라고 命名하고 前者는 政府高官으로써 組織하고 後者는 農林 商工業者中에서 各其選定된 六名、土民有力者中에서 選定된 六名의 代表로써 組織함

一、아디스아베바中央政廳에 統轄될 五地方政廳은 如左하다

(一) 에리트리아地方政廳(首府아스마라)
(二) 암하라地方政廳(首府곤다ー르)
(三) 가라시아담地方政廳(首府짐마)
(四) 하라ー르地方政廳(首府하라ー르)
(五) 소말릴란드地方政廳(首府모가디쇼)

一、아스마라는 特別行政區域으로 따로 行政長官을 任命하야 이行政事務를 司掌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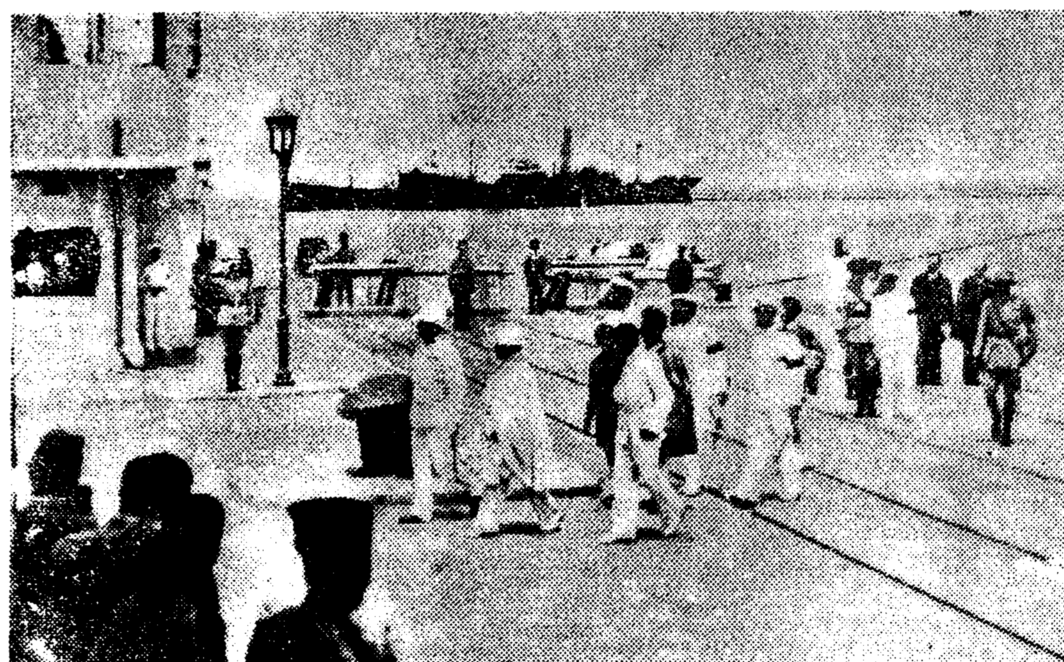
總督府總豫算額 三億二千餘萬圓

今年度事業은近近實施方針

追加豫算今二日發表

第六十九回 特別議會의 協贊을 經한 昭和十一年度 各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豫算中 拓務省所管朝鮮總督府 追加豫算은 今二日 總督府官報로서 公布되엇다 이에 實行豫算을 合하야 總額三億二千八百萬圓이란 未曾有의大豫算에依한 今年度事業은 드되어 近近實施되게되엇다 그런데 二日 公布된 追加豫算中 今年度로부터 開始될 主要한 新規繼續事業 各年度別은 如左하다 (單位圓)

一、電力統制資料調查	
十一年度	一一、六四〇
十二年度	八七、一七四
十三年度	八五、四九八
十四年度	三三、二九五
計	二一七、六〇七
一、總督府廳舍別館新營費	
十一年度	五九、六九二
十二年度	一二〇、〇〇〇
十三年度	九三、〇〇〇
計	二七二、六九二
一、新設學校新營費	
十一年度	一五四、六九二
十二年度	七五、八七二
十三年度	七五、八七二
計	三〇六、四三六
一、專賣局廳舍及工場新營費	
十一年度	一七九、三八四
十二年度	一八〇、〇〇〇
十三年度	一九〇、〇〇〇
計	五四九、三八四
一、日本內地朝鮮連絡電話施設	
十一年度	四六一、五六六
十二年度	九八六、九四八
十三年度	六一、一〇〇
計	一、五〇九、六一四
一、鐵道建設及改良費	
十一年度	三一、〇四〇、七八九
十二年度	二七、四〇〇、〇〇〇
十三年度	二七、三一〇、〇〇〇
十四年度	二六、三九九、〇一三
十五年度	二五、六五六、一七一
十六年度	九、七九二、六一七
計	一四七、五九八、五九〇
一、港灣修築改良費(第一號)	
十一年度	四、六二二、六二九
十二年度	五、九一一、〇〇〇
十三年度	五、二六〇、〇〇〇
十四年度	二、八八〇、〇〇〇
十五年度	一、八一〇、〇〇〇
十六年度	一、三〇〇、〇〇〇
十七年度	一、三〇〇、〇〇〇
十八年度	一、二二〇、〇〇〇
計	二四、三〇三、六二九
一、鐵道建設及改良費(第二號)	
十一年度	三八、三六〇、七八九
十二年度	四七、二四三、〇〇〇
十三年度	四六、五一〇、〇〇〇
十四年度	四五、五九九、〇一三
十五年度	四一、一六六、一七一
十六年度	九、七九二、六一七
計	二二八、六七一、七八九



에디오피아皇帝亡命……

伊太利의 侵入에 對抗하야 挺身督戰튼 에디오피아의 하일레·셀라시에一世陛下는 現代科學兵器아페는 엇지할수업서 마침내 祖國의 運命을 南東鐵道에 맛기고 憤然히 故土를 떠나 國外亡命을 不得已하게되엿다 寫眞(上)은 英船엔터프라이스號로 팔레스타인의 一海港하이파에 到着한 에디오피아皇帝(下)는 하이파港으로부터 汽車로 예루살렘에 到着한 하일레·셀라시에一世陛下

司法刷新運動 最下層에波及

司法民事刑事等傭員二百名

待遇改善을强硬嘆願

【東京電話同盟】二、二六事件을 契機로 司法官間에 司法刷新의 機運이 擡頭되엿는데 同運動은 東京地方區兩裁判所의 檢事、判事에波及하야 嚴者『部內刷新』이란 會로간미테 三十一項으로된 意見書를 作成하야 刷新氣勢를 올니고잇는데 機運은 더욱最下層에 及하야 司法民事 刑事等傭員約二百名은 二日午前九時突然俸給引上 待遇改善에關한 十項目에亘한 嘆願書를 作成하야 代表數名을뽑아 林法相所管所長을 歷訪하고 部內空氣刷新과함께 我等의 待遇를 改善하여달나는 强硬한 嘆願을 하엿다는데 時節이 時節인만큼 運動은 全國에 波及할 虞慮가잇슴으로 當局은 極力此를 憂慮하고狼狽하고잇다

에氏佛下院議長

【巴里一日發同盟】佛國議會는 一日로써 召集되엇는데 新下院議長에는 急進社會黨領袖에르리오氏가 就任을 受諾하엿다 同氏의當選은確實하다고보인다

八面鋒

◇稅金은 올니고 告知書조차 늦게 發送하야 納稅者가 어리둥절.

◇大京城된後 첫公事가 이꼴이니 서울양반되기도 정말어려운노릇.

◇別宮稱基를 放賣하기로 決定하엿다고.

◇時勢에따라서 公開함은 조흔일이나 由緖잇는터이니 光輝잇게 利用되엿스면.

◇昨冬의 雪旱은 凶象을 가저오고 今春의 雨不足은 秧板枯渴을 傳한다.

◇米穀管理는 마음대로하는세상이나 天候管理의 妙法은 發明이 업스니 奈之何.

朝鮮語學會著 한글쉽게배우는기게
朝鮮語綴字器

新聞發賣
特約店募集 詳細規定照會·要返信料
立文社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九三 注文先要郵券一割增
定價五十錢 送料十二錢 振替京城一九一三番

旗 カメヤ旗店 京城黃金町五丁目
カタログ進呈
國旗 萬國旗 校旗 優勝旗 會旗 寫眞旗 幟幕

네오치린 ネオチリン
可恐할害毒을流布식히는淋疾、消渴의療法으로서 玆에武藤、宇佐美兩醫學博士推奬의最新藥네오치린을推奬한다。本劑는當研究部가加藤藥學博士와共히幾多의實驗을거듭한苦心研究의結果完成된것으로서殺菌力이 가장强하고急性慢性惡性은勿論、膿、痛症도解消된다(療法書進呈)
二圓、三圓、五圓、十圓
京城本町四ノ二六 株式會社 木村藥房
兵庫縣細川、電淡河番 株式會社 山本製藥所
全國藥店百貨店에잇슴

法學士 山名酒喜男先生新著
最新朝鮮行政法講義
◇定價金三圓二十錢 送料書留三十錢
◇第一版、第二版豫約濟 第三版目下發賣中
前に朝鮮總督府行政講習會講師として指導せられたる先生の基本ノートに補筆完璧を期せられたもの
◇執務の上に 受驗準備に 敎材の上に!!
普文受驗者の必要缺くべからざるもの即ち本書
朝鮮官界の登龍門 普文試驗期日六月七日ヨリ京城中學校ニ於テ施行ト決定
發兌 文林堂 京城府永樂町一ノ七九 振替京城五四一七番

朝報案內
開業 就職 自由
一個月卒業化粧品科、石鹼科實習 通信敎授(案內書送郵券二錢)京城府鍾路町十四番地 松楠化學工業社 振替口座京城二五〇五三番
恩給 長期據置取立替 他에比하야利信用을最特色으로 照會回答 京城府授恩町一六〇 鄭商會

中央館 永樂町 電話本三番
當る三日封切 第一回午前十一時開始 第二回午後二時廿分 第三回午後六時四十分
劍鬼三人旅 監督並木鏡太郎
感激の人生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光3 三番
六月三日부터特別大公開 料金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午後一時半 六時四十分
大雄篇 罪와罰 全十卷
喜劇 遺產五千圓
喜劇 안해여 속지마소 一幕

朝鮮劇場 仁寺町 電光三六六
五月三十一日부터晝夜 喜劇座公演(第三週)
人情劇 債鬼 一幕
怪人마부세博士
쌈行世
接吻十字路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電龍三三番
六月三日より六月七日まで 今週に限り短期週間
初姿
旅鴉子供連れ
娘に告ぐ

浪花館
初姿 RKO日本版
旅鴉子供連れ 蒲田特作映畫
娘に告ぐ 六月八日より(家族會)

思想事件出所者中 要視察은二千五百
이박게 四千餘의 思想犯은 中途에서 脫落, 轉向

조선에서 대정십사년에 처음 공산당관계자의 대검거 즉제일차 공산당의 검거사건이잇슨후 매년대량적검거사건이 잇섯고 또각처에서 자조 대소검거사건이 잇섯는데 경무국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작년말 현재까지에 전긔와가튼 검거사건으로말미암아 생긴 사상범전과자는실로사천구백칠십팔명의다수에 달한다하며 다시 이외에 각소유예、보류등의 처분을 바든자를 합산하면 륙천이백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중에서 금후 요시찰인으로 감시할 필요가 잇는 사상관계자는 이천오백명으로 이것이 금번 실시될 사상범 보호관찰령에의하야 사상의선도와 보호를 밧게 될것이라한다 이 이천오백명의 남어지사천칠백명이라는것은 결국중도에서 타락하거나 또는 검거를당한후 처형을바든후에 사상전향을하야 이중에 와서는 그리감시할필요가 업서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다운 젊은녀자를 처음으로 마지하야 살아가는 현대의 스리라고한다

生活苦로 結項自殺

시내창신정(昌信町)이백칠십이번지 박천석(朴千石)(二三)은 일일새벽두시쯤되어 자긔집웃칸에서 목을매여 죽엇는데 원인은 생활고(生活苦)라고한다

東洋無線學校 生徒들이 陳情

학교경영의혼란이 표면되자 학교간판까지떼고 교장이 자취를 감추어버린 동양무선 기술과학교(東洋無線技術工科學校)의 동요사건은 긔보한바와가티 그후학생들해결의 서광이 보이지안어 이십명의재학생들은 모다가두에방황하고 갈길을모르고잇는바 이일아츰 학생대표 다섯사람이 본정서(本町署)고등계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당국의 선처를 요망한바 잇섯는데 당국에서는 책임자를 호출하야 재차학교내용을 세밀히 조사중인데 현재의법규가 이와가티 무성의한학교 경영에관하야 하등에벌측이업서 당국도 그선후책에대하야 당황하고잇다한다

大竊盜捕縛
西署에서餘罪追窮中

류월일일 오후열한시쯤에 시내 죽첨정(竹添町)파출소앞을 지나는 거동이수상한 청년한명을동 파출소원이 심문한결과 그는본적을 룡인군(龍仁郡)에두고 시내 북아현정(北阿峴町)백번지에 거주하는 전과일범 리덕모(李德模)(二三)로 작변시월에 금천(金泉)형무소를나온후 수원(水原)에 잇는 자긔의 누이집에 약이개월간류한후 작년십이월에 상경하야 시내각처로도라단기며 그동안 조선은행과 경성우편국등지에서 자전거열다섯대와 삼청정(三淸町)모하숙에서 양정(養正)고보학생의 소지금 이백원과 교북정(橋北町)모기생의 금시계 또는 남대문통모상회에서 축음긔와레코-드등 전후 오백여원어치를훔친 사실을 자백하엿는데 방금서대문서에서는 아직 여죄가만흘줄로알고 계속 취조중이라한다

朝鮮孤兒救濟會 第五回定期總會

조선고아구제회(朝鮮孤兒救濟會)에서는 지난 일일오후세시부터 동대문외답십리정(東大門外踏十里)조선고아원(朝鮮孤兒院)내에서 제오회정기총회를 동회부인회장(同會婦人會長)윤로덕(尹老德)씨 사회로열고 서기 민혜식(閔惠植)씨의 회원점명과 전회록을 랑독한후 간사강봉재(姜鳳在)씨의 경과보고가잇슨후 임원선거에들어가서는 임원전부가 그대로중임되고 다만 홍성선(洪性善)씨의 간사증선만 새로되엿다한다 동원(東元)씨가 보회사업진행에대하야 여러분과함께 최후까지노력할것을 진술한후 시내상공협회주사(朝鮮日報社) 조선일보 원여 기습함에대하야 동회가부 고 오후다섯시에 폐회하엿다한다

絶壁이 문허지는 통에 小兒四名이壓死
平北江界郡下의慘變

【新義州】 강계군 종서면 신성동(江界郡從西面新城洞) 장남 진봉조(秦?)(?)외 세명은 지난 삼십일 오후네시쯤 그곳 상동도로 가교(架橋)공사 장부근 절벽우에서 놀고잇는동 절벽이 문어지는 바람에 떠러저 압사에 깔리워 네명모다무참히즉사하엿다한다

大規模의 紳士賭博團
東大門署에서一網打盡
富豪鑛山業者關聯

시내동대문서(東大門署)에서는 그관내각처에 대도박단(大賭博團)이 출몰한다는말을듣고 지난사월상순부터 이래두달동안이나형사대를 각처에파견하야 필사적내탐을계속하야 오던결과 요지음에이르러 드듸여 사건의정속를 잡게되자 혐의자의 검거에 착수하야 시내종로(鍾路)통정목십삼번지 박희대(朴熙大)(四五)김창수(金昌洙)(四一)외 열여덜명을 검거하엿스며 그들은모다 전과수범의 도박상습자로서 그중에는 광산업자 회사원들도 잇고 더욱피의자한사람진홍환(金鴻煥)(三?)은 합부청진(淸津)사람으로 재산칠십만원의 거부라고 한다 그리고 이사건에 측접으로나 간접으로나 관계를가진 인원수는 약삼백명에 달하는모양으로 대규모도박단이라고하며 사건이이와가티 비상히큰이만치 금후의 진전은 국히주목되는 바라한다

脫走二重奏
仁川署에捜索願

【仁川】 인천서 보안계에 제출된 수색원 ▲경성부(京城府) 현저정(峴底町)이십륙번지 손영우(孫榮雨)의 처리씨(李氏)(二七)는 지난사월초순경에 그이웃에사는 젊은청량조대복(趙大福)(二三)과 손을잡고 인천정이어린것이어미를 피해가을 하엿다는데 본집에는 연애도는젊상을 볼수업다는 남편의수색원 ▲일본내지기부현(岐阜縣)출파도(不岐郡)청포촌(靑浦村)서석이(徐石伊)(三?)는 지금으로부터 약오년전에 정옥순(鄭玉順)(二?)이라는녀자를마저 안해를삼고 전남면의지식윤기동(尹基童)(二三)이까지 녀급으로잇섯는데 안해가 지난사월이십일 그의남편고혈로서지처금이백사십삼원을 절취하야 전남편의자식마다리고 도주하얏다 이에오륙년간이나신고하아모흔 저금을일조에 잃어버린 남편은!!잇지못할녀자!!를원망하는듯에 인천부내리(仁川府內里)에 거주하고 잇다는 소식듯고 인천서에 눈물석긴 수색원을 제출하얏다

金塊密輸事件
崔旺吉等公判

지난일월중순부터 부내에잇는덕력(德力) 대륙상회(大陸商會)석복(石福)등 큰금은상회에서 한번에 오십돔메내지 백돔메식오십여회나 황금덩어리를 여러가지 가명을써서 주문하여다가 간도(間島)로 밀수출하야 거대한 리익을 탐하다가 부내본정경찰서에 검거되야 지난사월이십일 경성지방법원에 송국되여온 외국위체관리법위반(外國爲替管理法違反)및그방조피고 함북성진군학성면 상포동(城津郡鶴城面)최왕길(崔旺吉)(三?)등 다섯명에 대한 제일회공판은이일오후한시부터 경성지방법원제사호법정에서 염견(鹽見)판사주심 궁기(宮崎)검사관여 미레열리여 사실심리에들어가 최왕길부터 심리를개시하엿는데 당일출정한 피고는다음과갓다 ▲城津郡鶴城面雙浦面 崔旺吉(三?) ▲咸南咸川郡北斗日面 大新里崔萬吉(三?) ▲同 鄭源吉(二?) ▲城津郡鶴西面 尹成日(三?) ▲城津郡鶴城面興坪洞 崔俊山(二?)

宣川郡東面에電氣供給

평북 선천군동면(宣川郡東面)에 잇는 주우합자회사(住友合資會社)의 경영인 선천금광에서는 종래에 백키로왓트의자가발전(自家發電)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오든중 이달부터 그것을 폐지하고 신의주(新義州)전긔회사로부터 일백오십키로왓트의 전긔를 바더쓰기로 되엿스므로 신의주전긔회사에서는이번긔회에 선천군동면을 그회사 전긔공급구역으로 편입하야 전긔를 보내기로 되여잇다한다

龍山赤色勞組事件 二日에豫審終結
治維法違反、幇助罪名으로 朴英出等十名公判廻附

작년삼월십삼일 부내룡산(龍山)경찰서로부터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 조선공산당재건을목표로 비밀결사적색로동조합(赤勞)을조직하려하엿다는혐의로 송국된피의자열네명중부내종로륙정목이백번지 박영출(朴英出)외의 십명은 예심에 회부되야 예심판사의취조를바더오든바 지난이일 예심이결정되어 치안유지법위반(治維法違反)및 그방조죄명으로 이일전부 그범위공판에 회부되엿다 ▲朴英出 ▲李仁行 ▲金鍊鎭(女) ▲孔成檜 ▲朴鎭洪 ▲沈桂月(女) ▲許和正 ▲金萬基 ▲權五相 ▲金潤會

李載裕와連絡 地下工作에沒頭
西大門事件과도同根異枝
昨春龍山署에被檢

피고들은리재유(李載裕)권영태(權榮台)등일파의 적색로동조합(赤色勞組)사건이 서대문 경찰서에서 검거되여 경기도경찰부에서 취조중에있을때 그당시도주중인 리재유와 교묘히 련락을취하야 군자리(君子里)『골프링크』경성약학전문학교압 경성의학전문부속의원안등 여러곳에서 수십차례로 서로 모히여서 녀자들은 인천동양방적공장(東洋紡績工場) 남자들은 영등포(永登浦)에 잇는 룡산공작회사분공장(龍山工作會社分工場)등에 직공으로 드러가며 혹은 외부에서 직공들을 선동선전을하야 동맹파업을 이르켜서 투쟁을 훈련시키는 일방으로 동지를 획득하며 적색로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활동하엿고 또는 각중등학교에도 손을 드리미러 학생들을 선동하야 ××주의 교육을 반대하는 운동을 이르키려고 활동하엿스며 장차는 그것으로써 조선공산당재건 운동에 이르기까지 전개할려다가 작년정월에 마츰내 룡산경찰서에발각되엿든것이라한다

피고 박영출은 동래고등보통학교(東萊高普)와 산구(山口)고등학교를 거처서 경도제국대학경제학부(京都帝大經濟學部)를 졸업한 경제학사인데 고등학교시대부터 공산주의서적을 만히읽고 공산주의에 공명하야 소화칠년이월에는 경도에서 공산주의운동에 가담하엿다 그해오월에 경도지방재판소 검사국에 긔소유예(起訴猶豫)의 처분을받은 리력을 가진 『인테리』청년이며 심계월(沈桂月)은 소화구년 삼월에 경성녀자상업학교(京城女子商校)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세균검사실(細菌檢査室)에서 일을보앗든 잇는 녀자이다 허화정(許和正)은 일즉이 공작위원회(工作委員會)사건으로소화팔년류월이십오일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륙개월의 판결을 밧고 복역하고서 소화구년일월 십삼일에 서대문형무소를 나왓다

飛行科志願生募集次 朝鮮潛入타綻露
逮捕된杭州軍官學校生徒一名
鍾路署에서押來取調

시내 종로서(鍾路署)고등계에서는 수일전에 안동(安東)을 거처 조선안으로 잠입하려던 중국항주군관학교(杭州軍官學校)학생인 경북출생의 정세호(鄭世鎬)와 경남출생의 김재형(金在?)의 두명을 압래하여다가 방금 그서에서 엄중취조중인데그들은 그전부터 경찰에서 미리 차린인물인데 이번 군관학교비행과(飛行科)지원자를 비밀히모집해갈것을 사명바더 전긔와가티 조선안으로 잠입도중에 체포된것이라고한다

暴行醉漢檢束

이일오전한시반경에 시내적선정(積善町)일백십이번지 유홍균(劉弘濬)의 음식점에 시내체부정(體府町)삼십삼번지 양복직공 윤성희(尹成熙)(三七)등 네명의 술군들이 들어와서 진탕해노흔 술병과기물을 닥치는대로 깨트리며 폭행을시작하야 통행중의 창성정(昌成町)이십번지 최영택(崔榮澤)(三?)등을 까닭업시 구타하다가 종로서원에게 검속되엿다

主論文 各臟器의越幾斯가 各其臟器에 及하는影響外副論文五篇 (사진은 윤치왕씨)

새女醫두분은
京城女子醫學講習所
出身의吳、李兩孃

시내 관철정(貫鐵町)에 잇는 경성녀자의학강습소(京城女子醫學講習所)출신의 리경신(李敬信)(二?) 오옥섬(吳玉蟾)(二?)의 량양이 이번륙월일일에 발표된 의사시험에 합격되엿는데 전긔 리양은 황해도수안군연암면율리(遂安郡延岩面栗里)가 그향이며 연암공보(延岩公普)와 평양 정의녀고(正義女高)를 졸업하고 소화오년에 녀자의학강습소에 입학하엿스며 오양은역시 황해도 출생으로 남천공보(南川公普)와 평양녀고보(平壤女高普)를 졸업하고 소화륙년에 입학하여던것으로 이번 당당한 녀의(女醫)된 두분은 금후 대학병원에서 더욱연구를 계속하리라고한다

世醫專教授尹致旺氏 醫博論文通過
今年四十二歲의榮學者

『세부란쓰』의학전문학교의 교수 윤치왕(尹致旺)씨는 그동안경도제대(京都帝大)의학부에서 연구하는한편 학위청구론문을 동대학에 제출하엿든바 작일에교수회에서 무난히 통과하야 바야흐로 의학박사학위를 엇게되엿다 씨는금년 사십이세되는 장년의 독학자로 일즉이 영국에류학하여 대정십사년『글라스고』대학의학부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소화이년부터 세부란쓰의전에서 교편을 잡고 잇다가 소화오년에다시 영국으

三段跳의米價
韓白米한말에十餘錢씩올릿다!
嘆息하는細民層의주머니

쌀갑시 뛰놀랏다 일본봄부터 붓적붓적 오르기만하든 쌀시세는최근에와서 근변에 처음보는 시세를보이고잇다 일본내지가 작년에 흉작이엇든관계로 자연조선쌀이 일본내지로 만히건너가리라는 예상도만혓든것이 큰원인이거니와 그보다도 일본내지의 시세가항상압서서 뛰고잇는바람에 조선의 시세도 이에따라서 오르게되는데 금이일의 정미(正米)시세를보면 대판(大阪)이 삼십사원 인천이 삼십일원구십오전으로 오르게되여 정미(正米)시세도 각지가모다오르게되며 마츰내 시중의 백미시세도 올우게되엿다 즉 이일경성부 권업계발표에 의하면 시내각공설시장의 소매가격은매킬로에 오리식올리엇다는데 금변봄부터 이번까지 세번재올랏다 시중상인의말에의하면 쌀이업는것은아니나모다 대상인이나 지주들이 가지고 잇서서 아프로 더 올을것을 바래고 내놋치안키때문에 시궁한 상인의 손에는 쌀이 별로업서서 부득이 더올리지 안흘수 업다고하며 이번에도 매킬로에일전을 올려야하겟다고주장하고 잇는것이라고한다 아프로도 정령더오르리라는 관측이유력하다 이가티 쌀갑시오름에따라 도시의 세민층소비자들이 생활의위협을 바들것은물론 이미추수때에 쌀을 팔게되엿든농촌의 소농도 가티큰타격을바게되여잇다 이일부터 오른 시중의쌀시세는 다음과갓다 ▲정백미는 한키로에 오리식올라서 특등미는이십오전 일등미는이십삼전오리 보통미는 이십삼전으로 되엿다 ▲한백미는 한말에십전식 오랏는데 상품은한말에 삼원이십전 한가마에는십오원오십전 중품은한말에삼원이고 한가마에는십사원오십전이라고한다

窃盜가侵入
橋南町米穀商에

금륙월이일오전열시반쯤에 시내 교남정(橋南町)일백이십오번지에 잇는 미곡상리병학(李炳學)의집에 주인이누어서 쉬는틈에 약이십세가량의 청년이침입하야 금고문을열다가 주인에게발견되여 그만도망하여버리고말엇다 범인은 문아페 자전거(京四四一二九號)한대를두기하고 도주하엿는데 이자전거도 절도한것이아닌가해서이되여 소관서대문서에서는 방금범인을엄탐중이다 그리고전긔자전거는 조사한결과 시내명치정(明治町)이정목오십륙번지 일

運動競技

東京서열린 力技詳報

日本最初의 重量揚(力技)選手權大會는 三十一日午後一時부터東京體育研究所에서 擧行한바 올림픽에 入賞할만한 好記錄이續出하야 臨場한 平沼體育協會副會長을 크게感動케하엿다 그리고 이날의各級記錄을 詳細히紹介하면 다음과가트며 體研側에서는 이번올림픽에 力技選手를 派遣할것을 懇請하기로되엿다

◇輕量級

	推上	引上	聳上	合計
井口(體研)	八○	七七·五	一○三·五	二六一瓩
中島(無所屬)	七五	八二·五	一○○	二五七·五瓩

【備考】 前記兩者의記錄은 羅府大會第十二位에該當하다.

◇輕體級

金容星(朝鮮)	九二·五	九○	一一五	二九七·五瓩

【備考】 이記錄은 羅府大會第五位에 該當한好記錄이다

◇中體級

飯田(無所屬)	八五	七七·五	一○○	二六二·五瓩

◇番外中體級

金成集(朝鮮)	一○五	九○	一二二·五	三一七·五瓩

【備考】 이記錄은 羅府大會의第六位에該當한 好記錄이다

京義럭비戰
京城連勝
新義州力戰不及

【新義州】 京城、新義州兩都市의 親睦競技인 第一回京城對抗리비戰은 三十一日午後二時부터 新義州高普球場에서 盛況裡에開戰되엿는바 京城軍의攻勢가 자못熾烈하야 二十三對五의스코어로 新義州軍 連敗하엿다 그리고同午後四時부터열린 京城對新義州高普戰은 新高軍善戰力闘하엿스나 十五對零으로京城軍이全勝하엿다 當夜京城리비軍을 新香園에 招待하야 當地有志五十餘名이 出席한가운데 盛大한歡迎會를 開催하엿다

마라손兩代表 各地通過時刻
明日午後三時着京

우리의至寶 伯林올림픽마라손 孫基禎 南昇龍兩君은 陸上競技本部隊보다 압서出發하는 日本選手第一隊와함께 六月一日東京을 떠나 伯林大會로 向하는 途中 三日午後三時十分 京城驛着 臨時特急으로 京城에 一泊後 翌四日 午後三時半奉天行「노조미」로 一路北行하기로 되엿는데 一行通過時刻은 다음과갓다 ◇釜山三日午前六時半入港、同七時出發 ◇大邱午前九時九分到着、同十四分出發 ◇金泉午前十時卄六分、◇大田午前十一時五十四分 ◇鳥致院午後零時三十六分、◇天安午後一時九分同十一分出發 ◇水原午後二時十六分 ◇京城午後三時十分到着 京城出發四日午後三時半 ◇開城午後四時四十分 ◇沙里院午後六時四十九分 ◇平壤午後七時五十二分到着 同五十七分出發 ◇新義州午後十一時四十八分 ◇奉天到着五日午前六時四十分

올림픽出場選手 京城通過日程

伯林에서 八月一日부터 열리는 第十一回國際올림픽大會에 出場하는 選手와其他一行은 다음과가티 各各朝鮮을 經由하야 伯林으로 向할터이다

一、日本陸上競技聯盟遠征團一行六十名 六月九日朝釜山上陸、午後三時十分京城下車 一泊後十日午後三時半京城發一路伯林으로 向할터인데 一行中에는 女流選手를 비롯하야 吉岡(短距離選手)大島、山本、南部諸選手及 마라손王 日比野寛氏도同行한다한다

二、文部省獎勵軍올림픽團七十名은 七月十六日釜山發「히가리」로 伯林에 直行

三、올림픽出場選手本部隊百五十名은 六月卄一日午後七時三十五分釜山發 臨時列車로 卄二日午前三時四十分에 京城通過 一路伯林으로 向할터이라한다

四、올림픽出場의 日本水上選手一行三十名은 六月十三日釜山發「노소미」로伯林에向할터이다

專賣各部對抗競技
七月四、五兩日間開催

第三回全朝鮮專賣局各部對抗競技大會는 來七月四、五兩日間 京城에서 開催할터인데 第一日은 午前八時부터 全員이 西大門俱樂部에 集合하야 優勝旗返還式을 마치고 京中運動場과 또는 講堂에서 野球、卓球、劍道를行하며 西大門俱樂部에서는 庭球 弓術을行한後 五日午後五時에優勝旗授與式으로 閉會할터이라고한다

올림픽選手歡迎會

올림픽派遣選手 來九日來京하는 日本陸上代表選手를 마지하야 全朝鮮陸上競技協會主催의 歡迎茶話會는 十日 正午부터 府民館中講堂에서 開催할터이라는데 會費는 二圓이요 一般 後援者의 參加를 希望한다 하며 出席者는 六日까지 主催側에 申込하기를 바란다고한다

十二年間早大連霸

第十一回關東學生對校陸上選手權大會兼 올림픽派遣學生選手送別競技會第二日은三十一日午前九時부터 神宮競技場에서 擧行한바 이날第一部의 最高點은 五點五分之一을獲得한 早大로 第二部에는 橫濱專門學校가 優勝하엿스며 早大는 六十六點三分一의 戰績으로 第一部로 이겨 第二部로 昇進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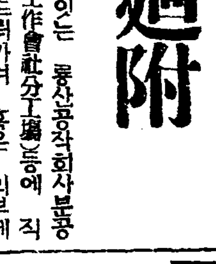
濠洲勝利
떼杯戰米國敗退

【멜버른一日發聯盟】 떼비스杯 아메리카존決勝、아메리카對濠洲戰은 三日에 이어 一日當地에서 二對一로濠洲리一드한후 계속 이긔어 다음의스코어로 濠洲팀이 覇權을 獲得하엿다

크로포드(濠洲) 4·6 6·3 4·6 6·2 6·2 아리손(米)

밧지(米) 6·4 6·2 6·2 귀스트(濠)

天氣予報



概況 七六○粍의 高氣壓은 日本南東海上으로부터 朝鮮으로퍼지고 北滿은 氣壓이낫다 滿洲朝鮮 日本內地는 모다 흐리고 곳곳에小雨가잇다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흐리고 來日도 흐리다 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四度四 同 最低 一三度三 今朝最低 一一度四 今日正午 二一度一

補精强壯劑 海狗腎 樺太廳官營採取 眞品 請求次第說明書進呈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釜山府草梁町三三二ノ三 電話二一一九番·振替釜山七九二二番

朝鮮赤松原木 廉價大賣出
產地—江原道高城郡東京帝國大學演習林
材長 一間(七尺) 一間半(十尺五寸) 二間(十四尺) 二間半(十五尺以上)
右材木의由來는 往古朝鮮五百年以來皇定封山으로 禁養해오던곳인데 自今三十年前부터 東京帝國大學農學部演習林으로指定이된 以後 採伐을 保護해온關係로 樹齡은 平均三百年이나되는 松木으로 柾目이 緻密하고 成長이 良好하야 赤味가 多量하기때문에 腐敗脂堪은 勿論 光澤이 佳良함으로 細工用 建築用材 建具用材 化粧用材 土木用材로 三十餘年前부터 日本內地에 移出되고 잇엇으나 今年부터는 數量이 적음으로 鮮內顧貢者諸位께 廉價로 供給코저하오며 現今約三百萬才을 高城驛頭에 貯着上陸시키는途中에 잇사오니 勿失此機하시고 多數注文하여주심을 敬要하나이다 注文規定은 原木及製材品을不問하고 迅速注文에 酬應하오며 遠處로부터의 注文은 적어도 壹貨車以上을 單位로하고 代金의 二割을 契約金으로 밧겟음니다
本店 江原道高城驛前 善益木材商會 振替口座京城一二一三
同 協和製材所
京城販賣所 京城府孝悌町二九七番地 電光二六一六番
龍山販賣所 龍山驛前(漢江通一五番) 電龍山③五一二二番

地方注文代金引換要先金 金銀 金銀賣買合資會社 京城南大門通一ノ九五 驛前 電話本局②一一三八〇 振替京城一一四八〇番

博士創製 털나는藥
▼田中醫學博士方劑
▼說明書無代進呈
田中醫學博士의創製인털나는藥후미나인은毛髮의發生을促進하야그脫落及지게미를防止하고、即頭頭、눈섭、수염、腋毛、其他人體髮이 稀薄한것을마케하고 微細한 毛根이라도 털나는藥 후미나인의 塗擦로 漸次生長식히요또禿頭病에依하야 毛髮이脫落될時其脫落을防止하고 또 이 諸病에 原因한 禿頭脫毛에 對하야서도 그病菌을 殺滅식혀서 그와갓치 털을나게 하오、
●대머리●젊은대머리●털성긴대●脫毛●헌어털빠진대●대리꼭지상한대●눈섭성긴대●털잘못난대●男女의꼭잇슬곳에 털업는분……은 只此 말고곳使用하라
毛生藥 후미나인
(全國藥店에잇슴)
후미나인價 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送料內地十二錢、其一品則時는 代金添付左記發賣元에 注文하라、即時送藥함
模造品이만흠 꼭후미나인이라 指名하시고 買入하시오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四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三一八三二 東京藥院
大阪市赤十字病院前 電話天王寺三五五六 振替大阪五〇八八番 東京藥院

連載野談

布囊記 (廿九)

申鼎言 作 金熊超 畵

그 미인의 눈물(三)

그 미인이 산는 동리는 조고마한 동리다。

우선 동리로서 보잘것이 업거니와 산도보잘것업는 산을도 보잘것업는 물。도대체 산수간에 풍경을 취할것이 업는 동리。물새조차취할것이 업는동리다。

그러나 이 동리는 먼곳、각가운곳의 나그내발길이 끈질때가 업스니 그것은 온전히 그 미인을 차저보려는 사람들이엿다。

그런데 그 미인의 남편이된 사람은 아주 미천하고 아주 변변치 못한 사람이다。

그럼으로 그 미인을 보고 그 남편된 남자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미남미녀(美男美女)가 한쌍의 원앙(鴛鴦)이되기 어렵다는 옛말이 오족 그미인의 부부를 두고 말한것이어니하는 늣김을 자어내게 되엇다。

그 미인은 얼골과 태도가 사람으로 태어난것을 의심하리만큼 아름다울뿐 아니라 그얼골보담 마음씨가 더 어엽뿌고。그 마음씨중에도 남편을 향한 그정성。그절개가 더한층 어엽벗다。

『남편이 산날이 내가 산날。남편이 죽는날이 내가 죽는 날。』

『나는 살어도 남편의 사람 나는 죽어도 남편의 사람』

이말은 그 미인이 그 남편을 두고 맹서한 말이다。

『허허。악갑다 그 병충맛고、미천한 여석의 안해되기는』

하며 돈잇는 사람은 돈으로써 그미인을 꾀고 권세가 잇는사람은 권세로써 그 미인을 위협하얏다。

돈!。권세의 위엄!●

이것이 그 미인의 아페 넘나들뿐 마다 그가 그 남편을생각하는 마음은 물을 끼언진회 덩이와 가티 갈수록 점점구더갓다。

『미천해도 내량궁 병충마저도 내량궁 가난해도 내량궁 …

『작년에도 내량궁 풍년이도내량궁 명년 도 평년에도 내량궁。』

이와가티 그 미인은 그 남편을 남이야 잘낫다거나 못낫다거나 그를 생각하는 마음은 해와 달이 돗거나 지거나 조금도 변함이업섯다。

그미인이 그 남편을 사랑하는것은 결단코 꽉 사랑이아니엿다。

그남편도 그안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해의 결심과 가탓다。

「내 안해가 산날이 내가 산날。내 안해가 죽는날이 내가 죽는날。내가 살어서는내 안해 사랑을 이불속에서 속삭거리고 내가 죽어서는 내 안해 사랑을 무덤속에서 속살거릴 나。」

하는 말은 그남편이 그안해를 영원히 사랑 하고 영원히 밋겟다는 결심이엿다。

이와가티 그미인의 부부간에 정은 둥굴고、둥굴고、또 둥굴고、단단하고 단단하고、또단단한울이 마치 벽공가튼지와 가타야 이리 몰려도 꼿진다가 업고 저리 몰려고 꼿진다가업다。

또한 손으로 번쩍 들어 내동댕이를 처도 깨짐이 업고발굴치로 꽉 밟버도 부서짐이업게될 예정이다。

그럼으로 그 미인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 곳에는 반드시 그 부부간의 애정이 지극하 두터운 소식도 들리게되엇다。

그 두가지 소식은 다만 여염집 사람에게만 들린것이 아니오 필경은 대궐안까지 들어가 개루왕께서도 아시게 되엿다。

개루왕께서는 그두가지 소식을 들으시고

「그래?。괴특한 일이다。」

하시면서 그미인의 남편을 부르라시는 분부를 내리섯다。

그 미인의 남편은 미천하고 번번치못한 초매성으로 지존하신 임검아페 서게되것이 오족 얼골과 마음이 갓추 어엽뿐안해의 덕이엿다。

그러나 달도 차면 꽉 기우나니、그 미인의 어엽뿜과 부부간 애정이 너머나 극진한것이 몰이혀 好事多魔가 가되어 기우러지는 그달과가튼 운명이 아페 가루노이지나아니할가。

「어이해 임검께서 미천한 내 남편을 불르실고。」

하며 그미인은 자긔남편이 왕께 불린것을 영광으로 역이지 안는뜻으로 고개를 숙이엿다。

바바리코스트 밀리암 홉킨스、에드와드G、로빈손、죠엘 맥크레 三人主演의 유나이테드、아티스트映畵

映畵界挿話

大損害를當한 聖林의撮影所

헐리우드의 撮影所에서 큰損害를본메가지의 이야기가잇다 메트로 社에서 二萬五千弗을주고 젬스、카인으로부터『포스트만・올웨스・링스・토와이스』의 映畵化權을 어덧는데 돈까지 다 치르뒤에、헤이스氏로부터 재미어다는 忠告를바덧다。사뮤엘、골드윈氏가『칠드렌스、와와』를『지승스리』로 改作하얏는 智慧를 借用하야 가지고同社에서는題名은 勿論이요 內容까지도 若干고치어서 어떠케든지 物件을 맨들어 보고자 原作을에워싸고 苦心中이다。그보담 좀더 損을 본것은 파라마운트社다。그會社는『세이라、뷰에아』에 二十萬弗을 投資햇다가 헤이스氏로부터 푸로트、題名 다한께 禁止를當하고 잇는것이다。

六月四日・ムシ歯豫防デー

新原料の威力

歯界に黎明!

日本一의歯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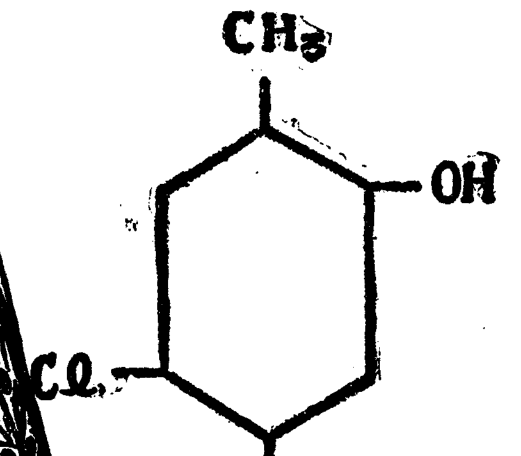
數千倍의稀釋度라도 殺菌效力은確實하다

專賣特許의구로ー루카르바구로ー루』及『요ー도치모ー루配合!

藥用クラブ歯磨는、口中에繁殖하야歯牙와內臟의病原因이되는 무서운黴菌의 侵蝕을防止하는專賣特許의強力殺菌劑『구로ー루카르바구로ー루』及『요ー도치모ー루』를配合、따라서清掃藥理作用을徹底的으로發揮하는歯牙와歯齦이 퍽으나 튼튼하야、虫歯가들지 안흘뿐아니라 또한歯牙의不潔을除去하고 特殊한 藥劑의作用으로히고어엽분歯牙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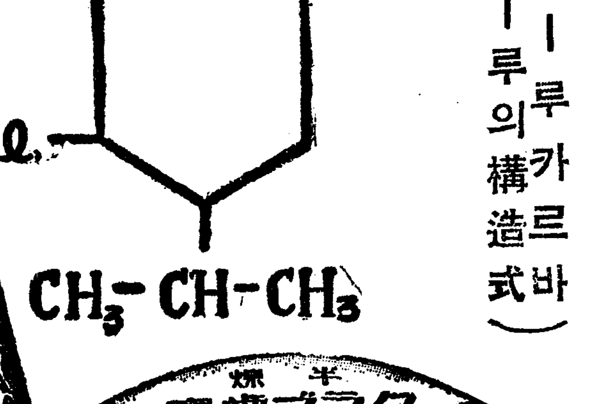
이런藥理効果

クラブ歯磨에配合되는 구로ー루카르바구로ー루』及『요ー도치모ー루ー는거이無色透明의結晶이며모ー든 有害한微生物에對한數千倍의稀釋度로서 強力한殺菌作用을 含有함으로何等의副作用도업습니다



(구로ー루카르바구로ー루의構造式)

15セン
25セン
30セン
46セン



16전

專賣特許

藥用 クラブ歯磨

구 라 부

손톱도 곱고볼일 보람업는 섬섬옥수

모양 숭업게 깍그면 보기추하다 요새류행인 "메니큐어"

사내들이 면도를 하지안하야서 턱에 뺨에 털이 꺼칠안이하고 다니는것도 보기에 숭업지오만은 안악네들이 손톱을 까지안하야서 손톱미테 때가 덕지덕지 해가지고 다니는것도 보기에 꺼룸직합니다. 머리나 반지르르하고 얼골이나 빤하게 가다듬어노코서는 그 이상더 할단장이 업는것처럼 아시지오만은 섬섬옥수 라고 미인이 되시는데 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것을 이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마니큐어라고 손톱도 단장을 시킵니다. 그러케 마니큐어까지는 또 몰라도 손톱을 조곰 곱게하실필요는 업지안할듯 합니다.

손톱은 흔히들 가위로나칼로나 함부로 깍는데 그러케 해서는 손톱의 모냥이 일정치를 안하야서 대단히 보기 실습니다. 이왕 손톱을 깍글바에는 열개가 한결 갓도록 일매지게 깍는것이 조흘것입니다. 그러나 손톱을 어떤 모양으로 깍글까 그것도 생각하야 볼 문제가 아닙니까? 일매지게 깍더라도 또 모낭나게 깍거야 하지아습니까? 일시는 삼각형(三角形)으로 깍는것이 유행하얏고 지금도 끗이 뾰족하게 깍는것이 유행이라오나 그보담은 동고스룸하게 깍거두는것이 무난할것입니다. 또 조선서는 될수잇는대로 밧작드리커 깍거서 손톱미트로살 아 빼주름이 나오게 하는습관도 잇스나 손톱으로나 손가락으로나 모다 보기조타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

손톱을 깍고서는 발붓이 보드러운 헝솔로 손톱미 틈에 ... 니다。 만일 거기 때가 끼게되면 균이 떨어 들어 가서 병이 되는 수도 업지 안습니다。 또 손톱을 깍고 나서는 발붓이 럴허겁으로 이손 저손 박구어 손톱등을문질러야합니다。 그러케 하다면 손톱등이 유태하야 지는동시 광채가 나게 됩니다。 누구나다 잇는것이지오만은 손톱등에는 동그란 반달형상의 금이잇습니다。 손톱을 깍글때도 그 금을 잘 들어나도록 깍거야 하고 손톱등을 닥글때도 그 금이 잘 들어나도록 닥거야 합니다。

손톱등의 반달은 빨가온대 의우물과가티 자연한 미라고 볼수잇습니다。 그러한미를 잘 살리는 데서만 오즉 단장하는 바겸이 들어잇슬것입니다。

×

마니큐아에는 손톱의광채를 돕기 위하야 기름도 바르고 또손톱등의 빗갈을내기 위하야 에나멜도 바릅니다 그러케 하는것이 보기 조흘지언정 나뿔것은 조금도 업습니다。 그러나 가정 부인네로서야 그런 폐까다로운 단장까지를어떠케 하시고게시겟습니까? 그것도 혹한두번 특별한 나드리는 몰라도항상 그러케 하실 수야 잇겟습니까? 하여튼그 발법이나 간단히 소개하야 드리겟습니다。 기름은 손톱기름이 따로 잇스나 보통 춘유(椿油)도 좃습니다。 그것을 헌겁에 무치어 손톱등에 문지릅니다。 또 에나멜에는 여러가지 비치 잇는데 그중에 빨갱이나 분홍가튼 것 보담은 자연색(自然色)이 좃습니다。 그것을 반달만 남기어 노코 쪽 발려서 말립니다。 물론 에나멜은 떨어지기가 쉬우니까 그것을 발른뒤 모시고 다닐 일도 적지 안 한걱정입니다。

金光芝氏가 手藝硏究所開設

해마다 열리는문화자주강습회에서 여러분이 낫익은 수예가김광지(金光芝)씨는 이번에 시내 교남정(橋南町一二五)에 경성수예연구소(京城手藝硏究所)를 열고 연구생을 모집하는중이라는데 연구과목은 문화자수 동양자수 불란서자수「일본」자수편물자수 수예에서 세탁법등이라고합니다

살결을젊게하는 계란의―노란자위

잔주름펴게하는흰자위 『홀몬크림』은문제안돼

계란을 얼골에 바르면 살결이 고와지고 잔주름을 펴게한다고해서 최근에 가정에서나 미용원에서 만히 계란을 쓰게되는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바이지만 대개를 계란의 흰자위만을 쓰고 노란자위는 쓰지를안는모양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잇서서 흰자우와 노란자위의 어느편이 피부에 대해서 영양가치가 만흐냐하는것을 과학적으로 검사해보면 노란자우편이 단연 만습니다。

◇

어재서 그러냐하면 흰자위의 성분은 거지반 단백질(蛋白質)뿐으로 되어잇고 그외에 교착력(膠着力)이 잇슬뿐입니다만 노란자위에 지방(脂肪)과 삐타민과가튼 영양분외에『레시틴』이라것이 퍽 만히 포함되어잇습니다 이『레시틴』이라는것은 요근래 야단스럽게들 떠드는『홀몬』의 일종입니다 그럼으로 노란자위를피부에바를때는 노란자위의그마흔『레시틴』이 직접 털구녕(毛孔)으로부터 흡수됨으로그효력을노코말한다면 시장에서파는『홀몬』이드럿다는『크림』보다 훨신강하다고할수잇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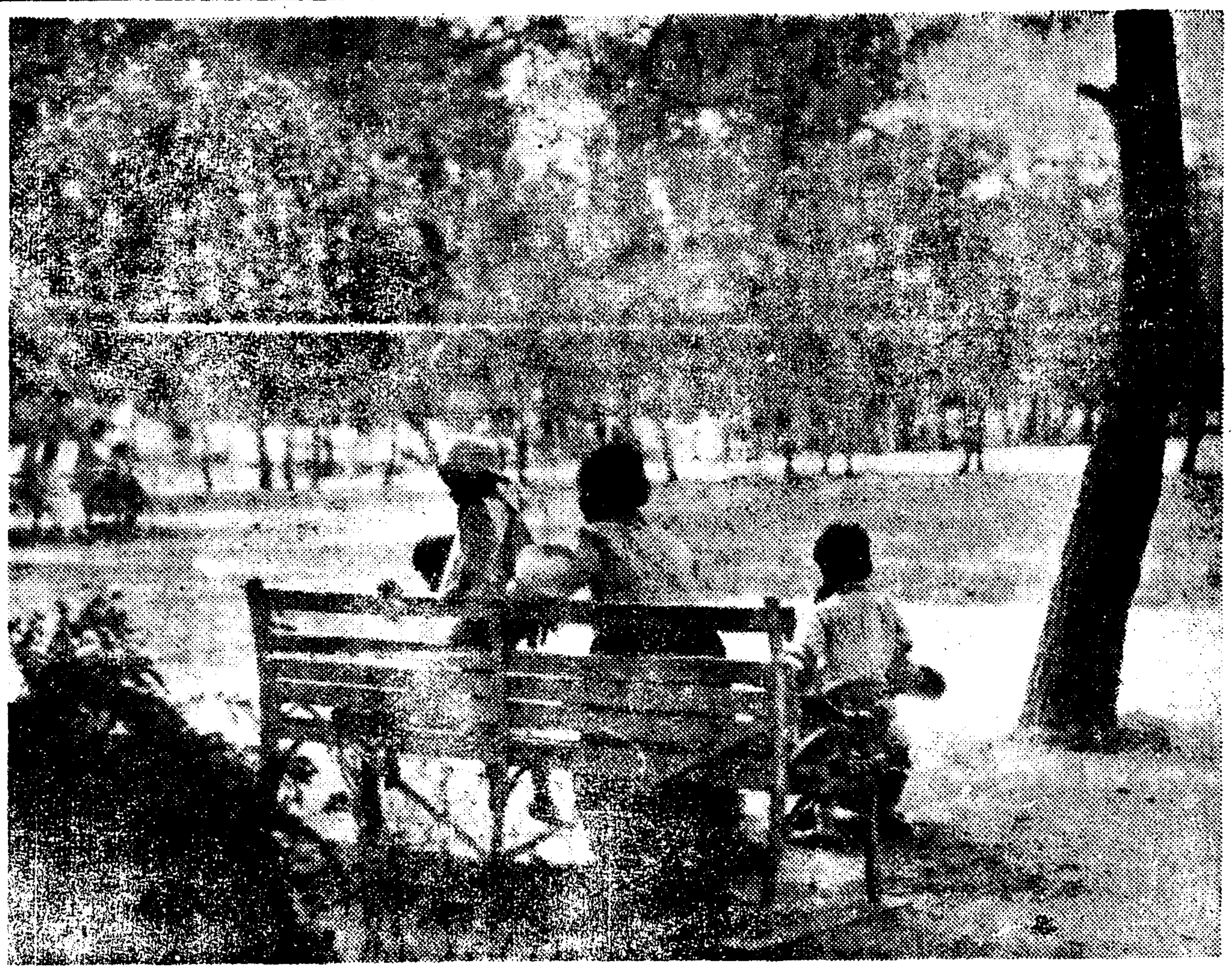
그럼 계란을엇더한방법으로써야 피부에조흘까…두말할것업시 흰자위와노란자위를 다함께쓰는것이 좃습니다。 그리 상적방법으로는 최초에 흰자위를 버큼이일도록 휘저어가지고 그것으로 얼골을씻습니다 그러면 털구녕속에 잇는때가 떠려지는 동시에 흰자위를 끈끈한 힘으로 말미아마 피부를 팽팽하게하야 자주름人살을 펴게합니다

◇

그다음에는노란자위를 제깨 딱으로 잘부려 그것으로 얼골에달으고 그우에다 뜨거운 물수건을 덥혀 오분 또는륙분가량 그대로두어둡니다 그러면 증기(蒸氣)의 힘으로노란자위의 성분이 기피 피부에 침투해드러갑니다

帛畵展覽會 場所를變更

우리가 전에 보지못하든 백화의 이백화를 연구하는 오직한사람의 예술가 김재은(金在垠)씨의 전람회가 경성에열린다함은 긔보한바이지만 장소를 부민관소 강당에정한것을 취소하고 본사 구사옥에서 열기로 되엇습니다 그런데 이번진열될작품은 총수 륙십점으로 인물、풍경、정물등 자미잇고 볼만한것이만습니다。



◎◎ 어제하로 ―어머니와공원에―

童話 바보왕자 (一)

崔益善

아조 마음이 착하고 어지신 임금님 한분이 계셧습니다 임금님에게는 사랑스러운 왕자세분이 계신데 첫재왕자님과 둘재왕자님은 퍽 영리하고 똑똑하얏지마는 셋재도시는 왕자님는 마음이 착하고 어지시지마는 모든일에 영리하고 똑똑한체를 하시지아니하시니까 모든사람보기에 바보가티만 보엿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우연히 병이드시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들은 임금님께 조흔약을 드렷스나 임금님의 병환은 점점 더하실뿐이여서 왕자님들은물론이요 백성들까지도 큰걱정들을하얏습니다

어느날인가 임금님께서는 병들신몸을 침상우에 누이시고 게실때 별안간 어떤 흰옷을닙은 로인한분이 나타나서서

『임금님께서 병환이 쾌차하시라면 희꼭이라는 산꼴에서나는 물을잡수십시요 그산꼴에는 이세상에서는 오직하나인 이상한 샘물이잇사온데 이 샘물은 왕자님의 귀하신몸이 친히 혼자 가지안흐시면 보히지를 안습니다 또 그산에는 사나운 즘승들이 만흔곳임으로 왕자님께서 가실때 즘생들을 주의하시지안허서는안되겟습니다』

하드니 그로인은 연기사라지듯 업서지고말앗습니다

임금님께서 깜짝놀내깨시니 꿈이엿습니다 그래서 곳 왕자님을 불느서서 꿈에나타낫든 로인이 하든말을하시고

『어느왕자가 나를위하야 그무서운곳에가서 이상한 샘물을 가지고올고?』

하시면서 왕자님을 도라보시엿습니다 세왕자님중 첫재왕자님과 둘재왕자님은 서로 나서며 『제가 가겟습니다』고 하얏스나 셋재왕자님이신 바보왕자님은 무엇을생각하시는듯 아모말슴도 하지안코계실때 님금님이하 모든신하들도 셋재왕자님은 원체 바보니까 별로 이상하게도 생각지안코 의례히 그러려니하고생각하얏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두왕자님께서 가시겟다고하시니까 퍽 깁부서서 먼저 첫재왕자님께 이상한샘물을 떠오기를 허락하섯습니다

첫재왕자님은 길가다가 먹을 음식과 조흔병하나를가지고 희꼭이라고하는 산을향하고 떠낫습니다

첫재왕자님은 희꼭이라는 산이잇다는 남쪽을향하고 거름을 빨리하야 길을갈때 어느산모퉁이에서 무거운 구루마를끌고가는 로인한분을 맛낫습니다

첫재왕자님은 오래동안 먼길 것기에 몸이피곤도하시고 심심하실뿐아니라 희꼭이라는 산이 얼마나 남엇는지 알수업서서 로인에게 희꼭이라는산이 얼마나 남엇느냐고 물어보앗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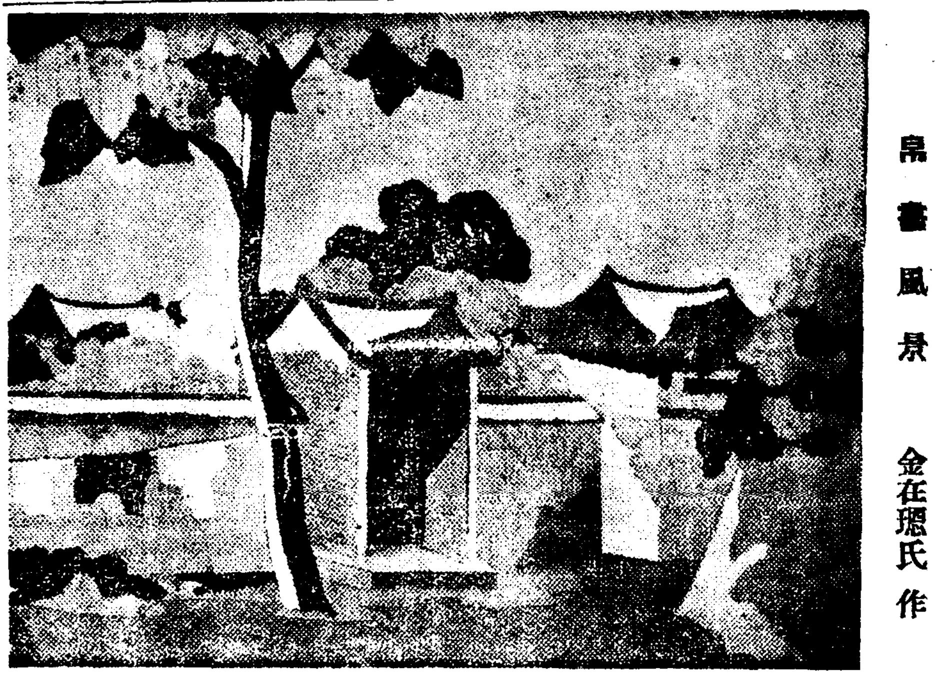
하니까 그로인은 왕자님의말은 대답지도안코 돌이여 구루마를 좀 밀어달라고 청을하얏습니다

이말을드른 왕자님은 성이나서서 그냥 아롤 보고서 길을 재촉하얏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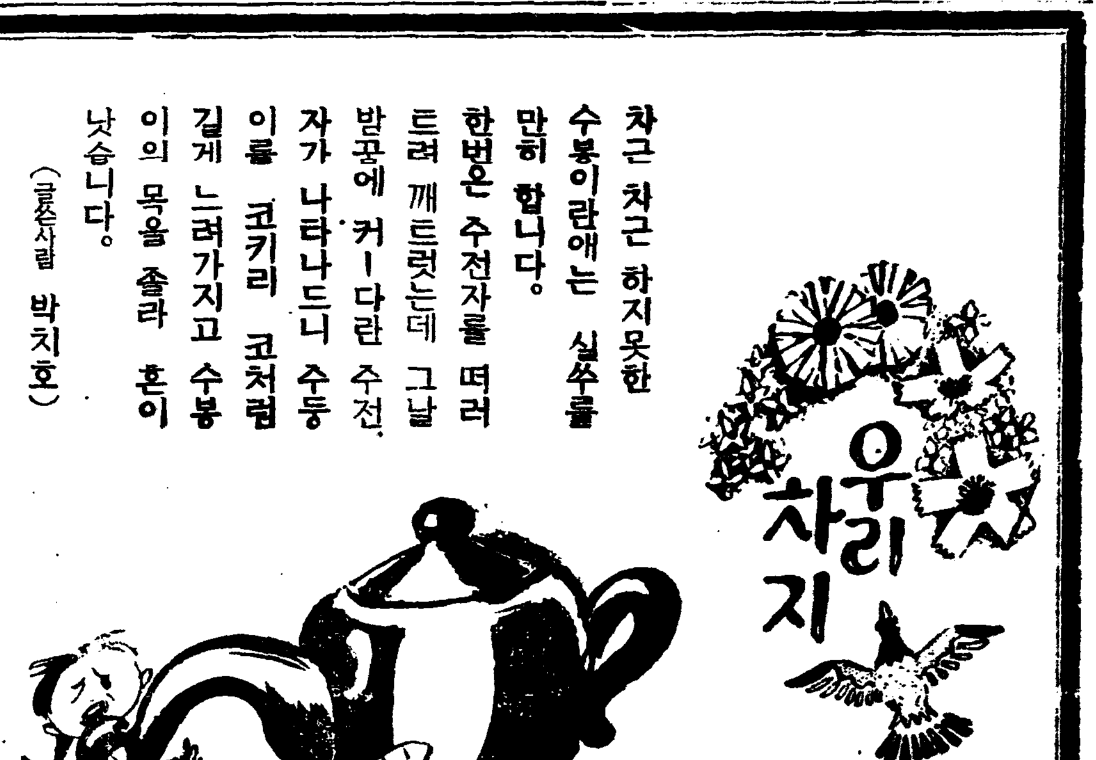
사흘이지난뒤 간신히 희꼭이라는 산에당도하야보니 산이험할뿐아니라 무서운 즘승들의 우는소리가 여긔저긔서 들녀오고 잇섯습니다

왕자님은 어떠케도 무서운지 감히 산에오를지도못하고 산아래 동내로 나려가서 보랴니까 바위에다 『별유천지』라고 써부친 곳이잇섯습니다 그래서 왕자님은 그곳에 드러가서 이곳 저곳으로 다니시면서 구경하기에 세월가는줄 모르고 지낫습니다 이때 나라에서는 첫재왕자님이 도라오시기를 아모리 기다렷지마는 오지안흠으로 퍽걱정에는 사나운즘생에게 해를입엇나 보다하야 임금님이하 모든신하까지 슬퍼하얏습니다

……계속……



帛畵風景 金在垠氏作



차근 차근 하지못한 수봉이란애는 실수를 만히 합니다。 한번은 수전자를 떠려트려 깨트렷는데 그날 밤꿈에 커―다란 수전자가 나타나드니 수둥이를 코키리 코처럼 길게 느러가지고 수봉이의 목을 졸라 혼이 낫습니다。

(글쓴사람 박치호)

림독성관절염

[문] 저는이십구세이온데 수년전에 임질로 고통하든중 림질은낫고 무릅에관절염이 연발하여 수개월간 고통하다가 또다시 절염은낫고 지금은 발뒤굼치가 부엇다 나젓다 하면서 염증이 생김니다 이러한지가 상년이되여도 낫지안코 행보하라면 아픈듯하면서 절뚝절뚝합니다 병명이무엇이며 주사복약이 필요할가요 수술할수잇습니까 자세히하교하여주소서 (小白山苦悶生)

[답] 림독성관절염입니다。 림질을 철저히치료하는것이 가장긴요하고 관절은 『렌트겐』치료가 잘듯습니다。 가정치료는 어려우니전문병원에 입원하도록하십시오。

(大學病院小川外科醫學博士) 金辰鎬

★曆★ 六月三日(水) (十四日) 陰丙子四月小 丙辰 土 箕·閉 ●祭祀에宜함 ●小滿二十一日(舊初一日) ●芒種六日(舊十七日)

라디오

六月二日(火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謠 天使손님 金泰仁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盧基南
◇同八時 講演『繪畫의鑑賞』 洛材高普 林學善
◇同八時三〇分 歌曲 一、界面 二、數大葉 二、界面頭擧 三、弄 四、羽界樂 五、編 金龍洙 金鳳仙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빠이올린獨奏 一、소나타 G長調…헨델作曲 第一樂章 아다지오 第二樂章 알레그로 第三樂章라르겟토 第四樂章 알레그로 二、찬트……화이트作曲 三、카빠티나……라프作曲 四、가봇트……베ー토ー벤作曲 五、로ー만스 G長調……베ー토ー벤作曲 伴奏 林春沃 李興烈
◇同九時三〇 唱劇調 一、短歌 雲淡風輕 二、唱劇調 바라령 金煥守 鼓手 韓成俊

第一放送

◇午前十時三〇分(東)어머니時間
◇午後〇時五分(俗謠)
◇同〇時三五分(大)國民歌謠
◇同二時 商店講座
◇同六時(東)童話劇
◇同六時二五分(東)講演
◇同七時三〇分(東)講演
◇同八時 만도링合奏
◇同八時二〇分(東)小唄物語
◇同八時五五分(大)義太夫

三日(水曜)

◇午後〇時五分 伽倻琴併唱 一、短歌 滄浪歌 二、唱劇調 華容道 四、풋고초 鄭錦濤 鼓手 姜萬秀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職務의觀念』 東亞日報社 朴承浩
◇同四時三〇分 野球試合實況 一 京城그라운드에서『殖銀對遞信』
◇同六時三〇分 童謠獨唱 崔辰男 피아노伴奏 陸好吉
◇同五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講演『軍事扶助事業에對하야』 伯爵 淸浦奎吾 譯講 西村眞太郎
◇同八時 講演『虫齒데이實施를當하야』 漢城齒科醫師會副會長 趙東欽
◇同八時三〇分 달거리外 一、달거리 二、平壤歌 三、赤壁歌 申花仙 全光泰
◇同九時 絃樂四重奏 絃樂四重曲 作品十五 第五番…하이든作曲 第一樂章 모데라ー토 第二樂章 메누엣토 第三樂章 아다지오 第四樂章 프레스토 桂貞植絃樂四重奏團 第一빠이올린 桂貞植 第二同 朴泰善 삐올라 安聖敎 첼로 金仁洙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英語講座 花園兼定
◇同九時三〇分 古談
◇同〇時五分(大) 모던小唄
◇同〇時三五分(大) 國民歌謠
◇同六時(熊) 이야기 寶山典定
◇同六時二五分(東) 基礎英語講座 鹽谷榮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文學博士 村川堅固
◇同八時(同) 管絃樂 新交響樂團
◇同八時三〇分(同) 浪花節 木村友衛
◇同九時五分(大) 歌謠曲 藤山一郞

四日(木曜)

◇午後零時五分 피아노獨奏 一、메누엣토…파데레우스키 作曲 二、軍隊 폴로네즈…쇼팡作曲 三、土耳其行進曲…베ー토벤作曲 四、洪牙利狂詩曲…리스트作曲(第六番)
◇三時十五分 衛生講演『齒牙와衛生』 세부란스病院 鄭保羅
◇同六時三十分 管絃樂 DK管樂團
◇同六、五五 兒童新聞
◇同七時 스포츠講座『水泳이야기』(一) 徽文高普 李一
◇同八時 講演『서울의城郭』 金日坤
◇同八時三〇分 音律 朝鮮正樂傳習所員
◇同九時 라듸오·드라마『牧師』二場 —配役— 吳牧師……申左侁 그의딸……吳愛葉 그의아들……李春峰 出獄者……宋在善 演出 申在晩 效果 宋熏 同人會
◇同九時三〇分 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역금愁心歌 三、楚漢歌 四、京邊歌 五、山念佛 六、夢金浦打令 金玉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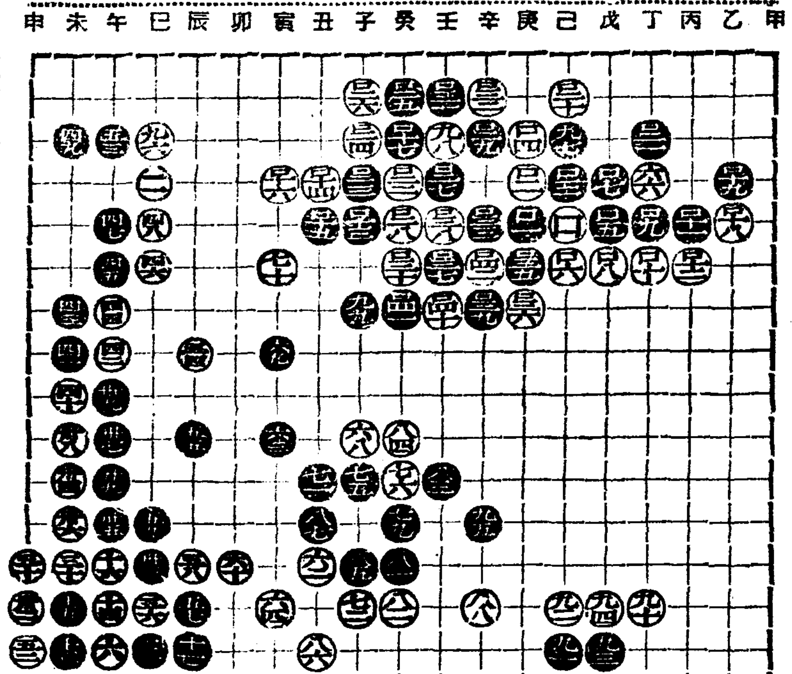
第一放送

大笒 金永根
◇午前六時三〇分(東)基礎佛語講座 丸山順太郎
◇午後〇時五分(東)警話
◇同〇時三五分(大)國民歌謠
◇同六時(大)衛生劇 大阪衛生劇協會 奧田良三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 毛利元良
◇同七時三〇分(京)講演 京城醫學部長 前田
◇同八時(前)(仙)河鹿의우름을 듯는다
◇同八時一五分(大)뮤ー지칼도라마 荒城의달 金森愛子外
◇同九時(東)連續講談(上)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9=

白 丁奎春
黑先 任佑植



●二九 辛의三 ○三〇 癸의六 ●三一 壬의二 ○三二 辛의二 ●三三 辛의五 ○三四 辛의六 ●三五 庚의六 ○三六 庚의七 ●三七 壬의六 ○三八 壬의五 ●三九 辛의七 ○四〇 壬의七 ●四一 癸의七 ○四二 辛의六 ●四三 辰의十八 ○四四 辰의十七

蔡極文氏評日 原是棋道가 平凹치 못하면 終成乖戾난 此亦理中出來라 白이 壬의五로 衝進하야 壬의七로 체을 構成함은 科外奇變이다 彼此間劫數多寡로 成否난 볼것이나 全局判決를 이로써 斷言하노라

色헝겁의 家庭手藝!

金在垠帛畵展覽會

六月四、五、六日間●本社舊社屋에서

午前九時부터 午後五時까지 入場無料

主催 帛畵硏究所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長篇小說 아카시아 (四)

安碩柱 作 金熊超 畵

『젊은이가 그게뭐요 그게꼿한 얼골을 그모냥을맨드니! 우리 가리 나희먹은사람도 하로라도 수염을 밀지안흐면 외출을 할 이 찌브드드―한데!』

경성의구내 층계를 올러가면서 과장이하는소리다

이말에 영섭의 얼골이 벌―개젓다 남이 자긔의 결함을 들겨주는것이 불쾌도 하지만 한쪽으론는 붓그럽기도 하엿다.

한달에 한번이나 석달에 두번쯤 깍는 머리에 정―수염이 털ㄱ록해야 칼로미는데 그칼이라는것도 오래ㅅ동안갈지안코 그대로 혀대에다가 문대기때문에이가빠지고 날이무듸대로 무데저서 수염을 깍그랴다가 포롤뜨기때문에 어느때는 정―보기흉하면 가위로 추려기만하는것도 요사히는 만사에 흥이깨저 그나마다 이저버린지 오래다 또면도칼과 싸우든 그혀대도 그칼에 허리를잘리여 지금은헌ㅡ넥타이로 양복허리띄를삼어 변소에갈때마다(뒤가 정마려워야변소에가는 성질이니까)한참씩썰매고 그허리띄를 끌르게되여 그럴때마다『아모래도 혁대를사야할터인데』하면서도 돈이생기면또 이저버리고해서 이제는 그넥타이허리띄도 갈기갈기헤저서 어느때는 이것이옹매젓기때문에끄르랴면 눈물이나오도록 쩔쩔매는 때가잇다 지금 영섭은 그것을 생각하니 우스어서 픽하고 우섯다

『왜그러나』

과장은 자긔의말끄테 영섭이가 웃는것가태 좀불쾌한모양이다

『아니올시다 기침이좀 나와서요』

영섭은 기침을 두어번해보엿다

『엇째 몸이 그러케 약하담 약을좀 자서야겟군』

이말이 꼿나자 두사람은 리발소 문아페다다럿다

맞침 리발소안에는 손님이적엇다 그래서 두사람은 나란히 회전의자에안젓다

거울에 빗치인 두사람은 또 열거울에 뒷거울에 빗친여러개의 자긔를 발견하고 자긔립체적(立體的)으로 관찰하는 행운을 어든드시 이리두리번 저리두리번하고잇다

과장의 뒷통수가 반들반들하게 미여드러간것을 영섭이가보앗다

―당신도 임이 허무러저가는인생이구료―하고 속맘으로 리엿다―그만하면 인생을알고 그러케 조비비듯하지안허도 살수잇다는것을 알때가 되엿는데요―하엿다

당신으로해서 당신의미려 잇는 당신보담미래가긴―젊은사람들이 얼마나 전전하며 그젊은생명이 마르고잇다는것을 아십니까、당신도 그것이 생활을위하라면 그들도 생활때문에 거기에 인종해오는것이외다

죽으면 다―가리 공동묘지로 속에서 석어서 뼈만남든지 또 그공동묘지가 이번이태원공동묘지가티 시가지에 편입되어 철거되게될때 묵때리도남은해골이요 거두어줄이잇스면 다행한것에 안치(安置)되든지 그러치안흐면 함께흙에드러가 재가되고 문지가되여 헤트러지는 똑가튼운명에 떠려질인간들인데요 사람은 착해야합니다 자긔가 아플때는남의아픔도아러주어야합니다―

영섭이가 혼자 그과장의런훈에게보내는 마음의소리다 영섭은 눈물이낫것가티 스사로 갈겨하엿다 그러치만 꼿그는그러면 나는 저과장보다 압선사람일까 하엿다 그러나 저과장도 다른것으로 나보담 압선것도 잇스리라 그압섯다는 그것이 어느한사람에게라도 아름다운 공헌을 한것이 잇느냐 그러케 생각하고보니 피면 자긔도 그와 마찬가지의 인간가탯다

『아하―』

그의 마음의비명(悲鳴)이 숨결을 모라서 탄식이 되엿다

리발사는 영섭의 그 기다란 머리털을 무자비하게 깍기시작하엿다 어느때이고 생각한일이지만 리발사란 털이면 깍굴줄만 아럿지 그사람의 얼골전형이라든가 그머리통 생김을 보아서 깍는것을 못보앗다 상고머리면 누구머리나 대파상인머리가티 갈라부치는 머리면 꼭 똑가튼 자리를 갈르고 하엿다 리발소에 부처노흔 리발전보회를 일종의 법전가티 밋는자다 첫재 영섭이가 리발을 잘아니하는리유가 여기에도잇는것이다

『正誤』昨日分第一段第五十二行에 『술마먹는』은『술안먹는』으로 同段第六十行에『피하라는수재는』은 『피하라는수작』으로 下段第一行 『술이라해서』는『술이라해서』로 同段第十二行『교활한사람에게도』는『교활한사람에게는』同段第十三行『어떤계가』는『어떤계기가』의 誤植이엇습니다

衛生口錠 (위생구정)

賣行大躍進인까닭에

열광적으로환영을바더서대약진을거듭하야옵니는

口中殺菌劑

カオール(가오ー루)의

입으로들어오는병을막고 정신을상쾌케하는

御愛用者(어애용자)께 感謝大奉仕(감사대봉사)!

進呈方法(진정방법)

カオール(가오ー루)를愛用(애용)하여주시는표로써

本劑定價金壹圓以上(본제정가금일원이상)에 相當(상당)한空函(빈상자)(袋入은十錢、二十錢에限하야 上包의效能書(봉효능서) 三十錢以上은空函各種(각종)을모아서合해도조흠)을

第一種郵便으로 (十五瓦(四匁)마다三錢切手를붓처주시압)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本舖 株式會社 安藤井筒堂藥品部 奉仕係로

붓처주시면 곳 上記의 オリヂナル香水(오리지나루향수)를進呈(진정)하옵나이다

○빈상자 혹은 효능서(效能書)를 본포(本舖)에즉송(卽送)하서도조흐며 또한 판매점(販賣店)에 전달(傳達)을 부탁(付托)하서도조흡니다

가오ー루는 전국 도처(到處)의 약방(藥房)에서 판매(販賣)하고잇습니다

定價와容量

袋入	(十錢)	百粒
同	(二十錢)	二百五十粒
포켓트容器添付	(三十錢)	三百粒
丁字形容器添付	(三十錢)	三百粒
御勾玉形容器添付	(五十錢)	五百粒
鞄形容器添付	(五十錢)	五百粒
光輝茶金石美術容器添付	(五十錢)	五百粒
德用瓶入	(五十錢)	八百粒
同	(一圓)	二千二百粒
新發賣保健容器	(五十錢)	五百粒

原料香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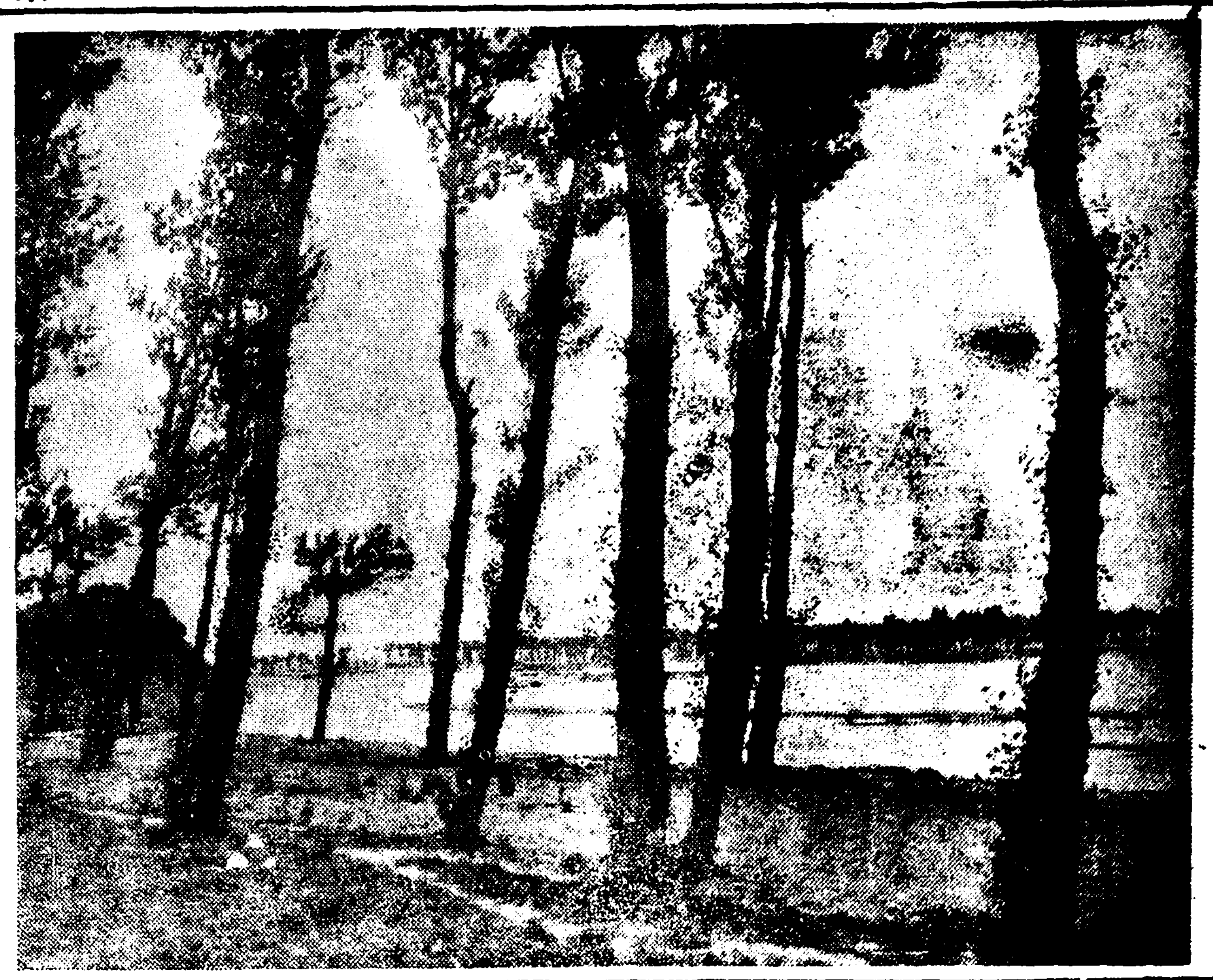
オリヂナル香水(오리지나루향수)

弊堂特製、本邦香水界第一位의 小瓶(定價金五拾銭)을

先着廿万人에限하야 進呈(거저드립니다)

期間 六月末日까지

期間中일지라도 定數에達하는때에는 締切하옵나이다



新綠의江郊

瑣事雜題 苦悶論 (上)

李源朝

苦悶이라는말이 文學上으로 問題된것은 내 記憶에 따르면 厨川白村이 著作은『苦悶의象徵』이라고 한때에 매우 有名한것이엇다고 생각한다。그런데 近者에와서 白鐵氏가 매우 情熱的으로 文學者의 苦悶이라는말을 쓰고잇는中이다。

苦悶이라는것은 한개의 精神的狀態이다。그럼으로 이것은 苦痛이라는 말과는 區別될때가 잇스니 苦痛이란 대개 現實的이오 直接的인 말하자면 肉體的 事實인데 比해서 苦悶이라는것은 非現實的이오 間接的인 말하자면 觀念的狀態를 말하는것이다。그럼으로 어느事實이 한개의 苦痛될만한 事實이라면 그事實에 부다치는 사람은 누구나 다苦痛하지 안흘수가 업슬때가잇스나 다른 한개의 苦悶할事實은 그事實을 經驗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苦悶 이라는 狀態를 招來 하지안는 것이다。假令 重傷이나 飢餓가 주는肉體的反應은 누구나 苦痛하지아니치못할 共通된 事實이지마는 時代的重壓이나 社會的危機와가튼精神的反響은반드시 一般的으로 苦悶하지안는例가 만타는것이다。

그럼으로 苦悶은 苦悶의象徵이라고할때나 또는 文學者란 苦悶하지안코는 偉大한作品을 創造하지못한다고할때는 苦痛이라는것을 우에서 말한바와가티 苦痛이라는것과 嚴密하게 區別하는境遇인것이니 이 苦悶이라는것은 苦痛하는것이 아니라 실상은 享樂할수잇는苦悶인것이다。

흔히 프르스트와 지-드를『不安의 文學者라고한다。그리고 戰後 佛蘭西 文壇에서는『不安』(Inquiétude)이라는 말이 潮水와가튼 勢力으로 風靡하엿다。그럼으로말하면 享樂하기를 不安을 天才와가티 享樂한다고하엿다。

실상 苦悶이나 不安이라는 精神狀態를 通해서 비로소 偉大한 作品이 製作된다면 그 苦悶이나 不安은 정말 苦悶과 不安이아니고 엇더한意味로서든지 享樂할수 잇는것이 아니여서는 안될것이니누구나 다經驗하는바와가티 一分의 餘裕도업시 山窮水盡境과가튼 苦悶과 不安의 狀態에서는 決코 創作的意欲도 생기지안는것이다。

그럼으로 作家에게잇서서의 苦悶과 不安이라는것은 餘裕잇는苦悶과 不安이며 享樂할수잇는不安과 苦悶을말하는것이니 이러한 苦悶과 不安을 通해서 나오는 偉大한作品이 우리文壇에 아직도 나타나지안는다는것은 作家들에게 이러한 餘裕잇고 享樂할수잇는 苦悶과 不安보다도 더 直接的이오 더 肉體的인 苦痛이 눌르고 身邊을 團繞하고잇는때문이라고 할수잇는것이다。첫재 제 自身의 糊口之策에서 生活의 衣食住에 부닥기는판이니 때로는 文學을 떠나서라도 우선먹고살어야하겟다는 窮境에잇스면서 어느餘暇에 精神的享樂으로서의苦悶을 經驗할겨를이 잇스랴。

실상 바로말한다면 時代的重壓이나 歷史的轉換이라는것이 우리에게 一種의 憂鬱한 感傷을 그럼새를 떠러주지안는바는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憂愁보다는 더直接的인 百千가지 現實的苦痛에 가우듣리게되니까 우선 苦痛에서부터 脫出하지아니하면 안될것으로 이것을 脫出하려고 허우적거리는동에 우리의 精力은 九分이나 消耗되고마는것이다。

그럼으로 人間苦라는 苦悶은 우리人類로서는 免치못할 運命이라고하는 사람도잇스나 萬若人間苦라는것이 이 地獄苦와가튼 現實의 肉體的苦痛을 이르는것이아니고 그것이 에서 내가規定한바와가튼 間接的이오 精神的인苦悶을 이르는말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人間苦를 運命的으로 體驗하는것이아니라 도리혀 우리는 이러한 人間苦와는 永遠히 無緣한 運命을 타고난種族이라고할수잇슬것이다。

잇게되것을 무엇보담도 기뻐하는바이다。

創作方法問題論議의 發展過程과 그 展望 (四)

安含光

다시말하면 그當時社會的特質 및 時代的限界에 緣由되여『現代레아리즘』에잇서서의 로맨티시즘과의結合은 決코 完璧의것으로 나타나지는못하엿다는것을 意味하는것이니 이는今後 새로운時代의 藝術만이 가저올수잇는 成果일것은 두말할것도업다

이와가티 限界──程度의 差異는 잇슬지언정 現代레아리즘』의 近代로맨티시즘』의 白紙的否定이아니라는것은 로맨티시즘의 巨匠 유-고의 藝術에잇서서도 레아리즘의 特性과및 手法이介在되여잇섯다는 한개의事態만으로도 充分히 證明되리라생각한다

그러면 朝鮮에잇서서의 아직까지의 創作方法問題論議는 레아리즘을 어떠한 面貌에서 어떠한 程度로서 解明하며잇느냐? 레아리즘을말하는者 言必稱발작크를말하고 스탄달을 말하나 그와時代的要求와 世界觀과의結合 로맨티시즘과의 關係等은어떠한形態로서 示顯되고잇느냐? 이것이 上論한바와가튼論理的前提下에 그의究明을 期待하고잇는此論의順序다。

朝鮮에잇서서의 創作方法問題論議에잇서 프로레타리아레아리즘-唯物辨證法的創作方法-社會主義的레아리즘및革命的로맨티시즘에이르기까지 한개共通되는特質로서表現되엿든것은 언제나『레아리즘』을 그前面에 내세워왓다는것이다。

이는 此論前面에 對한바와가튼 푸로藝術의階級的條件에서 緣由되는한개 必然한現象이엿거니와 그러함에도 不拘하고아직까지의 푸로作品은 多分히로맨티시즘에依하야 彩色되여잇섯다는事實은 무엇을 意味하는것일가?!

여기에서어떤論者는말하리라! 過去의作品이 驅使하는바 圖式主義的偏向을 指摘함은 可하나 그것이 로맨티시즘에 依하야彩色되여잇섯다는것은 한개의色眼鏡的인 認識錯誤이라고──그러면 나는 反問하리라!

都大體 이圖式主義的偏向이라는것은 具體的으로무엇을 意味하는것이냐고──그가 말하는바 內容은 果然藝術의黨派性을 떠난 主觀主義的傾向性과 換置한는偏向이라든가 現實社會의 歷史的動態의 레아리스틱한描寫를 否認한 哲學的構成과 換置하는 公式主義等에서 無緣될수잇는가? 아니다! 過去作品의 圖式主義的 偏向이라는것은 다름아닌 이러한모-든觀念主義的偏向의 異語同質的表現인것이며 따라서 그는어느便인가하면 로맨티시즘에 偏重되여잇섯다는것을 筆者는굿게미더 疑心치안는다。

그러기때문에新創作方法 即社會主義的레아리즘 및革命的로맨티시즘의論議가갓는바 過去作品의圖式主義的偏向에 對한 攻擊의화살은 應當、그가 體驗햇든바 로맨티시즘에 對한 非難과 同實의것이아닐수업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한가지 注意하고 넘어가야할것은 이러한 偏向을 單純히 現象的으로 把握함에 依하야 그의 責任을 全然 在來의 創作方法의 罪過로 돌리려는 安易한 主義에서 그自身을 警戒하지안허서는 아니되겟다는것이다。

이에 關하야 筆者는 일즉이 다음과 가티 말한적이 잇다。『-過去作品의 藝術的缺陷에 對하야 歷史的인 解釋을 갓는立場에서筆者는 그러한 藝術的缺陷은 모-든階級의 文學的發達에서 避할수업는 한개의 始發的段階의 現象이라고 理解하는것이 가장올흐리라고 생각하고 잇다。

웨(?)냐하면 階級文學의 初創期에잇서서의 모-든 作家는 새로운世界에對한 熱望과 憧憬은 가지고잇다할지라도 그들모-든 具體性에잇서서는 把握할수업는 社會的條件을 그基礎로 하지안흘수업든 것이기때문이다。

이리하야 朝鮮에도 그當時우리들의 作家들을 團繞하고잇든雜多한 現實的 鬪爭이라고 하는것이、頗히 原始的段階의 것이엇다는 客觀的事實과 相俟하야 이原始的인 運動의 흐름에나마 그自身을 合流식히지 못하엿섯다는 作家들의 主體的事情은 必然的으로 現實을 그의 複雜한 內面的 푸로세스와함께 具體性에잇서 提示하지못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世界觀의 純粹에 依하야 그世界의 根本的特徵、傾向만을 捕捉하기에 汲汲하엿든것이다」(拙論『創作方法問題新理論의吟味』中央日報紙上所載)

이와 關聯된 意味에서 우리의 理解를 補充할 엥겔스의 命題가 잇스니 그는 다음과가티 말한다。『資本家的生産의 未熟한狀態와 未熟한階級鬪爭과에 應하야 생긴 理論은、그理論도亦是未熟하엿다 未發達의經濟狀態가운데 潛在해잇든、社會的諸問題의 解決은 먼저頭腦的造作으로서나타나지안흘수업섯다。』

다시말하면 朝鮮푸로作品의 草創期的偏向인 構成上에잇서서의 圖式主義와 同時에 나타난 로맨티시즘의 色彩는 그當時의 未熟한 社會的狀勢와 分離해서생각할수는업다는것을 理解하지안허서는아니될것이며 따라서、이러한偏向에對한 機械主義的 否定의 行使에 對하야 冷酷한 鐵槌을加해나가지 안허서는아니될것이다。

作 한데우리가여기에서 注意하지안허서는아니될것은 어쓰로 品의 草創期的偏向인 로맨티시즘의色彩는決코 十九世紀前半에잇서서 世界觀一般으로서現出되엿든 文藝史上의 로맨티시즘과는 嚴格히區別될性質의것이라는것을 말해둔다。

創作에잇서서의 個性과 普遍性 ③

白鐵

犧牲의 一秘訣의意義는 有限的인 것을 破壞하는것이다…왜그러냐하면 그것은 有限的인까닭에!」라는 指摘은 愼重할 意義가 잇다! 그러면지금까지의 푸로文學이 取한 態度를 생각하고 反省할때에 今後의 우리들의 文學이 어떠個性 普遍性問題를 위하야 取할길은 過去의 프로레타리아文學이 犯한 過誤와는 反對로 될수잇는데로 個性과 有限性을 擴度로 擴張하고 深掘하는 側面에서理解하여야 할것은 比較的容易하게決定할수잇는 問題다! 도한過去의 모든文學의 例로서 보아도 過去의 全文學史가 主로 이個性 普遍性問題에서 犯한 缺陷은 언제나 너무 普遍性그것에 到達하는 意欲에 過重하고 汲汲햇기때문에 大體로 個性을 無視하고 적어도 輕視햇스며 그리고 個性無視의 傾向이結局은 도리혀 그들이 最後히追求한 普遍性에 到達하는것을 妨害하고 中斷한 事實을 우리들은 到底히 看過할수업는것이다

그럼으로 今後의 文學에잇서서는 어떤個性 普遍性問題를 解決하려고하되

過去의 모든文學과가티 個性될수잇는데로 과 有限性을 輕視 排斥하는것이 아니라 도리혀、어데까지든지 이個性 有限性을 最後까지 發揮해가는곳에 우리들이 目標하는 그普遍性에 到達하는 秘路를 決定하는것이다 따라서이 論文中에서 내가나의 大部分의 精力을다하야 讀者를 說服코저 하는것은 文學에와서 그것이人間意識의 産物인以上 그리고文學性格의 中心이 人間的인점에 잇는것과 또한 今日의 文學의 課題가 새로운 人間型을 探求하는데 잇는以上文學에잇서 個性에對한 切實한 追求만이 文學의 本道이며 今日文學의 課題에 應하는것이며 同時에 文學의 永遠한苦悶의 問題인個性과 普遍性問題의 結合과 統一의解決을 期할수잇다는것을 斷言히 指摘하여 論明하는것이다! 따라서 이論文中에서 내가論明하려고하는 主要골자은 文學은 어느側面으로보나 個性的일박게 업다는 여러가지 例證과 說明、그리고 個性的인데서만 普遍性에

到達 할수잇다는것과 그러면 個性的이며 個性的일사록 普遍性에 到達할수잇다는것은 具體的으로 어떠한 過程을 意味한것일까를 論述하는것이나 여기서 그全過程을 究明해가기위하야는 몬저 文學에잇서 個性的이라는 그個性은어떤것이며 文學은 어떤地位에서는까닭에 個性的일수잇는가等에 對한 比較的 明確한 理解를가지는데서 問題를 進展시키여야할것이다

文學에 잇서 個性이란 엇떤것인가?

여긔서 그個性이라는것을 理論的으로 考察하는者들의 例에따라서 그것을 作家의 個人的事實에對한 經驗과 歷史社會時代에對한洞察의融合!』이라는가 그것은 社會的 階級的關聯下에 客觀的現實的規定下에 또한 個人과社會性이라는等의 여러가지說決定할것이라는等의 辨證法的統一下에서 明의 場面을 찾는것은 勿論可能한問題다! 하나 文學的意味에서는 이러한 追求方式은 今日에잇서는 도리혀常識에屬하는問題와가티 보인다 왜그러냐하면人間이 그의

環境 社會 階級을떠나서 살수업는것은 물건이라는것은 今日에 잇서는 實로 常識以下의 常識에 屬하는 問題닭이다 따라서 이問題에 對한 哲學的追求라면 이方面에 依하야 얼마든지 더深入할 意義가 許諾될는지 모르나 文學을 위한 部面에잇서서는 그것이 哲學과 同等의 權利를 가지고 理論的으로 深入할 範圍를 갓지못한以上 도리혀 그常識領域에 ……

그러고 이것은 個性이라는 經驗의

蓄積 으로서얻어진 全人格의 中心的表現이다! 그의 心性格! 中心性格! 그것은肉體的인 有限的인 人間이 그의 天賦의 素質의 土台우에서 自身의 生長한全生涯의 온갓複雜한 經驗의 無意識的蒐集으로서構成된全體를 말하는것이아니고、그것은單純히 累積할 必要가 업는까닭이다 따라서 이問題에 對한 哲學的追求라면 …… 自身이 어느듯 統一되고結合된 不可分離의 自律的인 組織體를 일느고잇는것이다

─古書解說─ (五) 朱子增損呂氏鄕約

方鍾鉉

그러나 이形式即 漢字吐를달아쓴諺解書類라고는 다른一般책에서 그리흔히 보는것은 못되는 一特色이라고아니할수업는것이다

왜그러냐하면 月印釋譜니 金剛經이니 楞嚴經이니하는 오랜 諺解書에서는 이런形式을 取한것은업고 漢文의吐도 다만 諺文으로 달엇슬뿐이다 이런點에서 이책은 또한번貴하다고 말하게된다 다음으로는 諺解의部分에關하야 參考하면 아래와가튼 特色을 列擧할수잇다。

1、아숨 (親)
2、뻐여 (貸)
3、쌀 (米)
4、떠 (浮)
5、左側點이有함
6、수울 (酒)
7、닐굽 (七)

이와가튼 特徵이 有한것으로서 龍飛御天歌와 月印釋譜에잇는것과 가튼 唇輕音의 使用이며 初聲『異凝』의 使用은 업지마는 그使用上法則은 整然하야亂雜함이업고 다만 한곳에『ᄉ이』로써서 間의意를 表한것이 有하니 이것은 이語가 만흔中特히 이字만이 誤植된것으로 認하게 되는것이고 닐곱이니 일홉(名)이니 하야 다른 古諺解에서와 틀리는 即 일홉닐곱으로 하지안은것이 異常한것이다 그러나 수울(酒) 두울(二)과 가티 長音으로 表示한것은 高麗語를 베꼇다고하는 鷄林類事에 二日途孛、酒日酥(蘇)孛한것과 比較하야 크게 興味잇는것이라고 생각되며 左側에 잇는 點은 整密하야 이方面研究의貴重한資料이다 끄트로 만로使用한 沙字와 諺解되部分의 사字와의 關係를 簡單히 말하고그만두려한다 根本이 //ᅀ//字는訓民正音에裸字初發聲으로 되어잇고 韻書에는 日字母에 屬하는者로서 이것이 日本假名으로부行으로서 表示되는것이며 더욱이 이音이 使用된 上下聯絡되關係로 밀우어보아 //ㄴ//ㅁ//ㅇ//도中略音하게되엇스며 現代方言으로 調査하면 //ᄉ//와//ㅇ//의二者로 分列하야 並立하는狀態이니 이音을 나는 鼻的 齒音이라는 斷案을 내리운이가 數年前에 잇섯다 勿論 지금도 固定된 意見은 업는것이다 이것이 呂氏鄕約에 잇서서 새로히 웃事實에 한가지 더 加하는것은 이 이音을 表示하는漢字를 『沙字』로 쓴것이다 ○//字와는 影響업는 글字로써 나타나게되어 내가 생각하고잇는 익스音을 터 確實하게하는것이다 익스音으로 表示하기爲한 漢字는乃字와 關係가 기픈것은 말할것도업다 例를 들면

俟過爲也○ 乃揖而行爲羅
俟過沙 乃揖而行爲羅
기들워디나가거사읍응고라) P22

過旣遠於乃上馬爲羅
過旣遠沙乃上馬爲羅
(디나가미멀어사물타라)P22

이와가티 漢字의『沙』는『乃』字와 諺文의『ᅀ』字가 關係잇슴을 엿보게하엿스니 달리 金剛經諺解를 보아도

久乃日 하샤디
(오라사니 닐샤디)남
旣久ㅣ어사上에乃語助辭를하야시늘
(혹마오라거사上이 알리주무를 와서늘)4R

이모양으로 乃字와 關係가 거듭을 알수잇게되엇다 勿論 萬曆十一年에 그音을 달은 石峰千字文도 乃字에는 //사내//라고하엿슬뿐이다

끄트로 다시重言하는것은
1、正德十三年(西紀一五一八)에 金安國이가 諺解한것
2、諺文活字本으로 考査의必要가 有한것
3、萬曆二年頃에 栗谷 眉岩 西厓等 相當히 論議가 되엇든것
4、漢文의部分에 漢字로 吐를 달아서 吐를 硏究하는우에 貴重한것
5、諺解에잇서서도 글字가 古形을 保存한點에서 諺解書中 第二類에 屬하는貴한資料가되는것

이와가티 貴重한書籍이 오늘애 幾存되어 그것을 引用할수

藝術과 創造 ─素材에對한 作家의 使命─ ③

李秉玨

이것은 氏의 情熱的인探求에서 나온 修道的精神과 神經質的燥急에서 나온逆說的인 心情의表明外에 若干의衒學과 니히리스틱한文字의羅列박게 더무엇을차즐수업다。

情熱과興奮이 藝術家에게 必要한적이 업슴은 아니나 적어도 事物의本質을 論議하며 探求하라는데 잇서서는 우리는 그 情熱을 조곰辭讓하고 興奮狀態에서 冷情으로 도라가자!

文學批評이란 決코 그모양의 燥急과興奮만으로는 되는것이아니다。적어도 文學批評의客觀性이 잇고 藝本質이術의 客觀的眞理의 認識과 表現에 그任務를 가지라고 하는것이 承認될수잇는 現代라면 이程度의 燥急과、興奮狀態를 가지고는 文學批評의危機는 除去될수업슬것이다。

레알리즘이냐? 로멘티시즘이냐 이것을 取하든지 저것을 取하든지 두가지中의 하나만을 잡어라 하며 이範疇만으로 藝術을 評價하며 作家에게 强迫하는 文學批評처럼 文學을 混迷케하는것은 업다。이것은 文學의싹시우에 퍼붓는 毒水다! 아모리 偉大한作家라도 레알리즘이나 로맨티시즘이나 하고 强迫하는데 번뜩 이것이다 하고 確保하야 잡아쥐고 斷言할 勇氣잇는 사람이 잇슬수잇슬가? 元來作家가創造한다는情熱은 浪漫일것이요 白氏와가티 이것은 이러타 저것은 저러타하는그것부터가 浪漫的인精神일지도 모르다。

客觀的現實은『作家의腦髓』에 史的槪念과도 가튼이것이엇나저것이잇나하는 浪漫? 寫實?라는 아모런相關도업시 存在하고 잇는것이다。그러타면 作家는 이러한 客觀的現實ㅣ다시말하면

創 造的素材를對할때그것을 어떠한 創造過程과認識過程을 지나서 形象化的다일을 創造할것인가? 外面的인模像만을 가지고는 事物의本質을速斷할수업다。여긔에는 完全한藝術家일사록社會的現實의 創造素材속에 흐르고잇는 矛盾相과眞實性의 藝術의本質的內容을 당울것이요、偉大한眞實的典型을創造하는속에는 偉大한 浪漫|—可能한世界와 잇는世界를 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現實의 안티테-제의核子의生長과 그生長의偉大한 浪漫的諸相 그리고 이것의辨證法的進行에 따라오는 明白한歷史的必然性等이 素材의 直接的 感覺보다 一層더 正確하게 模寫되여야할것이며 思惟에依하야 創造되外界實在의 模像은 또한새로히 提供되感覺內容(客觀的 素材)는한時라도 停止해잇지안라 이것은 作家가아모리 寫實하기爲하야 붓드러두랴하야도 둣지안고流動할것이다)라의 照合를通하야 校正되며 이러한

連 續的認識은 歷史的으로 發展하는外界의 實在的眞實을 더욱더正確하게 認識하며 客觀的眞理의近似値를 求할수잇는것이다 이곳에서 藝術家의腦髓가 生理的으로 寫實과浪漫의 固定된先天的偏在가 아니며寫實과浪漫의 並行的思惟가不可能한것이 아니라는것은 臨床的인解說을 갓지안흐라도 알수잇는것이다

生理學的으로 作家의腦髓가不具가아니다음에야 무엇 때문에客觀的現實의 藝術的創造素材속에 兩者의寶庫와 圓明이 存在함에도 不拘하고 感覺과思惟의 實踐을通하야 認識하여서는 안되며 認識할權利가 업단말인가 萬若認識할수잇다면 思惟를通하야 取捨하고 典型을 創造하며 形象化한대자 아모런 越權도 아닐것이다。

海外短信

『밀톤』大『코랙숀』 『프린스톤』大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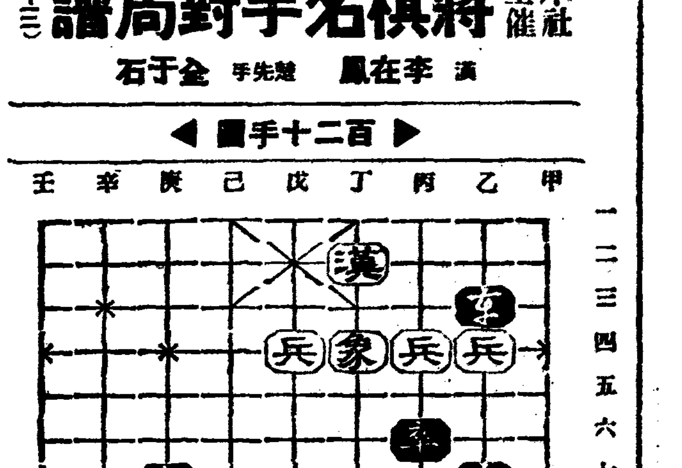
十七世紀英國詩壇의 明星인『밀톤』의著作初版本其他의 多數蒐集이 『프린스톤』大學에 購入되엿는데 最近米國의 『밀톤』研究家들의 愛惜하여마지안는바가되여잇다。

『코랙숀』은 一六四一年부터 一八八五年까지 刊行된 二百五十四冊의 叢書로 되여잇고 이中에는名著『失樂園』의 羅甸、獨、佛、伊、蘭各語의 初期飜譯三十二冊이 包含되여잇는데 이 『코랙숀』中 가장重要한部分은 『보스톤』의故헨리·오-스틴 호이트네-氏가 蒐集한 新聞自由論、離婚論、宗教論 敎育論의팜프렛트初版이다 此等은어느것이나 一六四一年부터 一六五五年까지 刊行된것인만큼 古色蒼然한中에도裝幀、意匠等의中에 當時의 英國社會의時代相이 나타나잇다 다시當時나타난『밀톤』에 對한研究批評等의 重要한著述도 細大업시 收集되여 잇서 『코랙숀』은 이方面에잇서 現代의最高峰이라는 評判이잇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十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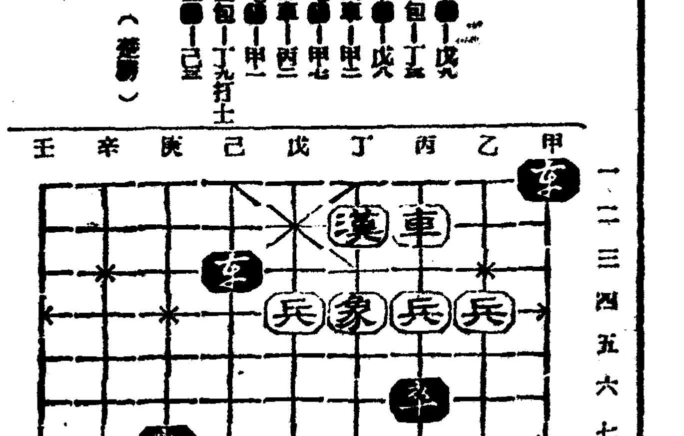
漢 李在鳳 先手楚 金于石

◀百二十手圖▶



◀終局圖▶

丁一包一戊九
丁八包一丁五
戊一卒一戊八
甲八車一甲三
乙七卒一甲七
甲二車一丙二
甲七卒一甲一
丁三包一丁九打士
乙三卒一己三
(楚勝)



『뉴-욕』上空의 힌덴부룩號

初夏와植物 ─生命의象徵인新綠─ (上)

李軒求

初夏植物界의 景觀을 代表한것은 新綠이다 三春의 百花가爛漫한 景色도 아릿답지만은 初夏의新綠이 大地를뒤덥흔 그것도 또한 愉快한景觀이다 봄의 植物景觀은女性的이라고 한다면 初夏의植物景觀은 男性的이라고 할수잇다 아릿자릿한 美觀은아니라하더라도 어데인지모르게미덤직한 늣김을 준다 푸릇푸릇한色彩를 接할때에는 무슨偉大한 生命이뛰노는듯하며 將來의 無限한希望을 暗示하야주는듯하야 우리大地에는 새光明이 빗처오는듯한感이잇다 나는 一年中어느時期보다도 第一初夏의新綠을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조와하고 아니하는것이 植物自體로보아 무슨 相關이잇스랴 一般植物들의 꼿치 되고니(葉)피퍼진것은 每年의 年中行事라느니보다도 自己의 生命을 維持하고 百代千孫까지라도 永遠히 種屬을 維持하자는 生物本來의 目的인것은 勿論이다。그러나 이것을 論하는것이 이題目의 本意가 아닌고로本論에 도라가서 여름과 植物의 關係를 論하기로하자。

여름도여러가지

여름이란 더운 時期를 意味한다는것은 누구나 다아는 常識이지마는 이것을 正確한 意味에서 어느때부터 어느때까지를 意味하는것이냐하면 그것은問題가 좀困難하야진다 氣象學上으로는 六月、七月、八月을여름이라하고 天文學上으로는 夏至에서 秋分(九月二十四日頃)까지를 여름이라고하며 曆의慣例로는 立夏에서부터 立秋(八月九日頃)까지를 여름이라고하니 우리는 어느것을 準信하여야할지가 問題이다 그러면 以上에말한것처럼 더운때를 여름이라고하면 第一無難할듯하지만은 溫度여하면 度까지나하면 이것은 緯度의高下와 海拔의高低에따러서 天候의差異가잇고 또同一한 緯度同一한 海拔尺이라하더라도 地形에따러서 溫度의 差異가顯著한 關係로 溫度에依하야 여름을 定義한다는것은 季節로分類하는以上의 困難에 逢着하게되다 世上일이란 無細密하다따지면따질수록 缺點이 보이기쉬운法이니 수수하게初夏도더위지는時節 即太陽이 比較的갓가워지는時節이라고하야두자

더운時節과植物

이世上모든生物들이 太陽아니고는 直接이든지 或은間接이든지間에 左右間 生活을繼續할수업다는 그理法을 植物도버서나지못하엿다 첫재로光線이업시는同化作用을할수업고 同化作用아니고는 生活에必要한食料를 求할道理가업고(例外도 잇지만)둘재로 溫熱의供給이업시는 植物體를組織한細胞의 生命이부지를할수업는고로 따러서 꼿도필수업고 新綠도 잇슬수업는 것이다

그러면普通植物의게第一適當한溫度가 몃度이냐하면 그것은植物種類에따러서 갓지아니한고로 一律的으로말할수업지만은 植物中第一高溫度에抵抗하는것은 硫黃菌과 藍藻類의 一種으로 七十度假量되는溫泉湧出口에서 生活할수잇다는것이 最高記錄이요 그와反對로 最低溫度에抵抗할수잇는記錄은 珪藻類와 그外몃가지植物이 雪線上에서도 完全히生育(바데리아를 除하고)한다는것이 恒常植物生理學者들의 두고두고씨여먹는例인대 이러한特殊植物을除하고 普通顯花植物들은 氷點以下가되면 生活作用을停止하여야하고 四十度乃至五十五度假量만되면 枯死하지아니할수업스며 普通으로는 二十五度乃至三十五度 假量이 第一適當하다고를수잇다 이러한 溫度가 溫帶地方에서는 여름이아니고는 잇슬수업스나 一般植物들이 여름을 享樂하는所以가 여기잇는것이다。

讀者社交室

▲小生은 今年滿十七歲되는少年으로 普通學校를卒業하엿스나 家事도 貧寒함으로 上級學校도 못가오니 資金업시 工夫할學校나 小生의適當한職業에就職할데를指導하여주시요。

水口共濟組合 李命孫

▲朝鮮日報今年一月八日 同十一日學藝面一枚와 二月中運動欄에 連載되든朝鮮陸協發表朝鮮陸上十傑第二回分과 第四回分을下記住所로 보내주시면 雜誌『朝光』一月號 一部謹呈하겟습니다

京城府東崇洞四番地 李壽景

▲全北井邑全文在氏에게問하나니다

陰大正六年九月七日
陰明治二十八年五月十一日
陰明治二十四年二月十五日

右記年月日을陽曆으로좀아리켜주시면 感謝하여기겟습니다 或은다른분이라도아리켜주셔도조켓습니다

慶北開慶郡開慶面下里七七 錢一

▲四月八日平原一讀者께答함 石粉類는 朝鮮産과日本産이잇서서 注文數量과 去來約束에따라 單價도가트지안습니다 弊店서石粉都賣商과密接해서 可及的實과價를相反하게 提供할수잇사오니 直接問議하시면 詳細히回答하여드리겟습니다

京城驛前 三和運送店

▲硏樂生君에게! (四月十四日社交室에서) 同志로서 下問을拜答합니다。高敞劉相澤陸燁男共編著의『音樂學概論』과 下總院一著의『和聲學』島崎赤太郎校閱·福井直秋著의『和聲學教科書』福井直秋著『對聲學』草川宣雄小泉洽共譯『音樂通論』井上武士著『初等作曲法』等이 조홀줄압니다。

▲第五千三百二十六號社交室欄苦學生에答함 身體가寒冷症에附子를服用하시겟다고하니 그도良好할듯하오마는 分量을넘치게服用하면危險하니 左方文대로 服用하심이 良好하겟지오 當身의病은下腹冷症인줄압고잇소 四象으로 小陰人이오 性質은耳溫順한줄아오

加味定手丸

乾薑良薑靑皮陳皮五靈脂蒼朮等分作末糊丸梧子大每服空心三十九式日三服

▲全北龍潭里金聲氏에게 貴體大安하십을仰祝耳 五月二日讀者社交室에 내신글을보앗소 讓渡하시겟다는冊이 두種類인듯한대한冊만도讓渡하실는지요 그럿수만잇다면 冊의新舊를 不關하오니 (熟語本位 英和中辭典)을얼마하여주시면感謝하겟습니다

平北定州邑城外洞 姜龍周

▲改造社發行白南雲著『朝鮮社會經濟史』는 絶版되여 定價以上의價格으로賣買되엿다니 사실인지? 再版할것가튼지는안어요? 사보자니웨그리힘드는지요 엇지하면살수잇슬가요 (靑邑만냥)

▲本人은 今年二十才男子이온대十五歲때부터 演劇과또는映畫藝術을硏究하여왓는대 至今도多大한趣味가잇습니다 生이그런方面으로가고저하오니 여러先生任들께同情하시는마음으로 그런方面으로 就職을시켜주시면 感謝하겟나이다 그리고저의 住所로서本紙上으로 問議하야주시면感謝하겟나이다

延白郡延安面鳳南里 盧銀奎

憂慮되는各地의旱魃

平南六個水組貯水量 移秧에도太不足

各水組理事技師等二十餘名 道에集合對策을講究

【平壤】비가오지안허 평남농민들은 극도의공포를늣기고 잇스며 이곳저곳에서는 긔우제(祈雨祭)까지 거행하면서 한울을처다보고 비나리기를 기다리고잇스나 비는나릴긔약이 보히지안허 무섭한창천을 원망하는 소래가 사모처잇다

대동(大同) 강서(江西) 장수원(長水院) 순남(順南) 평안(平安) 자산(慈山)등 륙개수리조합에서는 십일부터 시작할이앙을 압두고 일일오전열한시부터 도청에 각리사 긔술자등 이십여명이 회합하여 대책을협의하엿는데 각조합에서의 대책안이라는것도 별로신통한것이업서 우수는 갈수록 더치어가고잇다

지난달이십오일 현재의 각수리조합의 저수량(貯水量)은 최고록할이부 최저삼할로 이앙이후의잔수(殘水)예상은 강서 순남 장수원 자산의 네곳은 다소여유가잇스나 평안 대동의두곳은부득이 이앙면적을감하든가 그러치안흐면 종래와가튼 이앙방법을 폐지하고 물을 넘우 만히쓰지안는 새이앙방법을 취하기로 되엿다。

엇잿든 이번의 토의결과는 각방면에서 주목의 표적이 되여잇스나 신통한 수단방법으로 물을 만드러 내이지못하는 한절망에 갓갑다。

저수지 집수량(集水量)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갓다。

組合名	灌漑面積	計畫集水量	五月의貯水量
大同	三一五町步	二六六町步	二四三町步
江西	一、二二六	一、二六六	一、〇四〇
平安	四、五五五	四、六六八	三、六九〇
順南	八六三	一、三四〇	一、一七〇
長水院	三六五	三五五	三五〇
慈山	一、二九八	一、九六八	一、四〇〇

◇五月滿水量에對한比例 ▲大同 四割七分 ▲江西 六割二分 ▲順南 五割八分 ▲長水院 三割一分 ▲慈山 四割九分 ▲平安 三割

世上悲觀한船夫 自家에다放火

【江華】강화군 길상면 초지리(江華郡吉祥面草芝里)에사는 유길성(劉吉成)(二八)은 지난 이십구일 자긔집에다 불을 질느고 괴로운 생활의 청산을 하랴든 인생비화가 잇섯든바 그내용을 듯건대 전긔 유길성은 일즉이 홀아비로서 아들흘길너 성가를 식히엿스나 아들의 부부간불화로 인하야 며누리는 자긔친가에서 오지안코 다만 늙은모친 되는 고씨(高氏)(七一)가 조석을 끄려먹는바 항상 생활에도 극도로 곤난한데다 인간으로서 가정의맛을 못보는 비애와 늙은모친의 손수만드는밥을 어더먹기도붓그럽고 또직업이 선부(船夫)라 일정한수입이업서 생활난도 어지간하지안흐므로 전긔와 가티 극도에 비관끗헤 자긔집에불을질러 모든것을 청산하랴든것이라고한다

旱魃에強風繼續 田作物被害尤甚

二週內로降雨업스면年事狼狽 咸南地方의人心不安

【咸興】함남도일대는 오월초순 작물때부터 한발이계속되어 그동안 오월이십일경에 한번조곰 비가온이후에 매일바람만 계속하야 부흥으로 방금성장긔에잇는 밧농작물에 지장이 만타고하며 특히 두래는 파종직후에 모진 바람이불어 밀조차 잘못된곳이 매우만타고 농민들의 근심이 대단하다 그런데 아직도가물은 더욱계속될듯하며 금후에 이주일간만더가물게되면 작물이 말려버릴 형편이라고하야 농촌인심은 적욱히 불안중에잇다고한다

匆驚!五百餘 至急電話申請

【元山】그동안 신축중이든 전화국의 완성에따라 공전식전화(共電式電話)가설에 분망중이든 원산우편국에서는 비로소 림시가설도 완료되엿슴으로 일반부민의 대망중에잇든 공전식도오는이십일 오전영시를 비롯하야 전시일제히 개통하기로 되엿다는바 이계긔를리용하려는 본년도 지급전화신청은 원산국창설 이래 초긔록을지어 작년도 백여신입자에비하여 그오배에상당한 오백이십삼명이나 신청이잇

水道協會支部大會 凍結防止策討議

四日부터平壤府에서

【平壤】수도협회조선지부(水道協會朝鮮支部)에서는 사일부터 이일간 평양부청에서 제오회지부대회를 매일오전 아홉시부터 개최케되엿다 참석자는 전조선각지대표자삼십일명이 출석할예정으로 평양부에서는 다음과가튼 두가지의 안을 제출하여 평양수도사고방지의 재료를 삼기로 되엿다

一、水道메터所在地檢定時에 檢定證交를 受檢者가 買得치 안토록 當局에 要望할것

二、給水栓凍結防止設備에關한 方法에는 各地의 詳細한實情을 알고십다는것

美貌의籠中鳥 失戀悲觀自殺

【新京】만주의 지터가는봄을등지고 실연끄테 세상을 비관하고 오월의청춘을 닷니여 음독자살한미모의 녀인이잇스니그는 원적을 강원도 철원에둔박길원(朴吉元)(二二)기명춘자(春子)는 상당한 미모의 주인공으로 원래가 얼골이잘생긴 탓으로작년신월 봉천을 거처신경삼립정 미복(新京三笠町美福)이라는 료리집에와서 잇게되엿다 그도청춘이나 자유롭지안은 농중의몸으로 항상자긔의신세를 비관하든중그도긔연이엿든지 모씨라는유력한사람을알게되엿다 그후 둘사이는 점점열정적이엿스나모씨는 원래가 자긔의직책이 잇는관계상 부득이 체면을 유지하기위하야 자조가든길을끈케되자 주인의 학대는더욱심하얏슬뿐이오미덧든 련인까지 마음이줄던함을 비관하고 그는다량의「칼모진」을먹고 오일새벽 자살하라는것을 발견하고 의사의응급치료가잇섯스나 결국은 한창의 유서도업시 다음오전세시에 죽엇다한다

新設된家屋稅戶稅等 等級查定이不均

安岳에서도不平聲

【安岳】날마다 늘어가는 납세는 생활곤난에 허매는 일반주민에게 일대공포를 늣기게하는데 소화십일년도부터 다시금새로운 명목과동시에 세금을 몰게되는 납세가잇스니 그는 가옥세이다 가옥세 부가세등이 이변부터 조사에착수하야 작변에맛치고 금변호과부터 첫시행을하게되면서 호별세 부가세부과 또 가옥세 부가금등이 계원들의 조사불충분인 관계인지는 모르나 고르지가 안허서 대부분의주민들이 일대불평을품금치 못하게되엿다 례를들면 산막(山幕)집 가튼곳은 대개가개와집인데 그산막집을 보통민간에 잇는개와집과가티 매여서 보면에 비하면 사오배나 더하게되엿다고한다 이외에도 가옥세와 호별세가 엄청나게 평균치못하야 일반의 비난이자자한동시에 종시이대로나가게되면 타지방으로 이거할수밧게업다고한다

鐵山에拳銃強盜 虛僞告發로判明

【新義州】지난이십팔일 오전두시 철산군부서면하암동(鐵山郡扶西面霞岩洞) 정기원(鄭基元)방에 권총가진 강도한명이 침입하야

三亭聯合主催로 弓術大會開催

【載寧】등영남궁정(登瀛南弓亭)해운정(海雲亭) 현무정(玄武亭)주최로 오는십이일부터 십사일까지 사흘동안 남궁정(南弓亭)에서 전조선궁술대회(全朝鮮弓術大會)를 개최한다는데 신입금은 신입일까지이며 회비는 매인에일원 오십전이라한다 상격(賞格)은다음과갓다고하며 신입장소는 남송정이라고한다

男射員部 一等 一人五十圓 二等 二人五十圓 三等 三人四十五圓 四等 四人四十圓 五等 五人三十五圓 六等 六人三十圓 七等 七人二十一圓

女射員之部 一等 一人十圓 二等 二人十圓 三等 三人九圓

다

平壤에又復天然痘

【平壤】얼마동안 소식이 끈허젓든 천연두 발생의 소식이 또전한다 평양부내 경제리(鏡齊里)백칠십삼번지 목공업 김순실(金順實)의 손자 장손(長孫)은 사일전부터 발열하야 치료중 삼십일일 진정천연두로 판명되여 평양서에서는 환자를 격리식히는한편 부근일대를 대소독하는 동시에 종두를 연행한다한다

鰮魚群本格的襲來 各港에서續續陸揚

端川群仙等各港에서四百樽突破 咸南沿岸俄然活況

【咸興】거다랑고엿든 온어(鰮魚)가 함남도연해에 와다는 희소식은 이미보도하얏거니와 그후에점점호조를뵈여 삼십일일까지 단천(端川) 군선(群仙)등각 어항에서 어획한것이 약사백준(樽)이나되엿다고하며 도내연해에 전반적으로 대풍획을예상케한다는데 어촌은 아연활긔를띄고잇다한다

城津港에初陸揚

一日間廿餘樽突破 當業者는喜欣雀躍

【城津】동해안 농산어촌의경제를 좌우하고잇는 정어리(鰮)가 금년은 아직 그그림자도 나타내지안허 당업자들뿐만아니라 일반에서까지 이를크게우려하고잇든중 지난삼십일밤에는 금년처음으로 성진만북양고가 이십여통(樽)이나되며 정어리대군은 성진만근해에얼마든지 옹거하고잇다하야 당업자들은 작약하는중에잇다는데성진의오유비제조업은 지난삼십일밤으로써시작이라고한다

權元河氏別世

【醴泉】레천(醴泉)에잇서서 사회운동에 만흔 활동을하든 권원하(權元河)씨는 오래동안 병으로 신음하다가 지난이십구일 삼십구세를일기로그만세상을떠나고마럿다 대구씨는 기미(己未)운동때 대구형무소에서 역을 마치고 그후 서울게의 맹버로 활동하다시고 향인 레천으로 나려와서는 신간회간부로잇섯고 그후소화오년 경북사건과 구례청사건으로 만흔 활동을하엿다고한다

陰城雹災被害

【淸州】오월이십팔일 충북음성(忠北陰城)군내 음성 원남 소이(陰城、遠南、蘇伊)등 삼개면 육개리에는 당일 오후삼시부터 십부간 내지삼십분간이나 즉경 사부(四分)내지 칠부(七分)의우박(雹)이 나려 농작물의 피해가 막심하다는데 삼십일 음성군수로부터 충북도지사에게 도착된보고에의하면 피해면적이 칠백사십정보로 피해액이팔천원에 달하리라고예상된다고하야잇다 떠욱그자세한내용을보면 다음과갓다고한다

種別	被害面積	被害程度
麥類	二五〇町步	三割減
大豆	二五〇町步	五割減
蔬菜	七〇町步	五割減
棉	六〇町步	五割減
煙草	八〇町步	三割減
桑	三〇町步	二割減

(桑立六十四枚減)

清潔檢查간巡查 村婦女毆打重傷

被害者診斷書添附告訴提起 —事件의歸結을注視—

【立石】안주군대리면(安州郡大尼面)마성 경찰관주재소 순사모는 지난십사일에 동면 문남리(文南里)청결날이되여 청결검사를나가서 청결검사제증(清潔檢查濟證)은 구장에게 각각 분배해주라고 맷기고 그날오후집으로 도라오는길에 그곳 리영진(李永鎭)의집 압길을 지나가며 고함을 질러차집으로 전긔리영진처 과부최씨(崔氏)(三九)가 나간죽청결검사를맛햇느냐고 물음으로 다햇노라고 한죽 순사는또다시 그러면 이웃동리에가서 여긔순사가 왓다고 청결검사하라고 떼라고 하라고호령을 함으로방금집이 비엿스니 조금잇다 아이들이 오거든 갓다오켓노라고 한죽 경관의말에 무슨반항이나하며 텁버들어 구두발로 전신을함부로 차고 따려여 팔을부러지엿스며 그자리에 혼도한것을 또다시 포승을 지우라고대드는것을 그때야 달려온 가려갓든 순사모씨와 구장 기타동리사람들이 겨우말리엿는데 산골작이에서 가난한 생활로 겨우 농사나 지어먹고 살든 피해자 최씨의집 가족 다섯사람은 농번긔인 이때에 누어신음하는 어머니를 붓들고 눈물로세월을 보내고 잇는중이며 피해자 최씨는 원통함을 익이지못하여 눈물을 흘리며 왕방한 긔자에게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글세 이런 뜻하지 안흔변을 당할줄이야 어찌 알엇겟습니까(부러진팔을 둘러메고 후후늣기며)내가 무엇을 잘못햇길네(말을맺지못하고느거운다)……우리집도 이곳에하나 바께업고 그순사가 갓다오라는곳은 오리가 거진상거되는곳인데 그때 집에는 절문이(며누리)와 나와둘이 잇섯습니다 내가 안가겟다는게아니라 지금 집이 비엇스니 조금잇다 아들이 오거든 갓다오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케 구두발로 차고때리니 그때는 세상이 어찌되엿는지 몰낫습니다 의사의 진찰말슴이 절골이 되엿스니 일변이상 걸려야 완치되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진단고소를 하라고 한죽 동네사람들이 그만 두라고 말리기에 그만두라고 헤드니 친정에서 이것을 알고 극도로분개하여 「에스탕서진단내여 고소를 제기케되엿습니다」운운

漁村에핀美談!

死線에直面한遭難漁民을 洞民이共同出力救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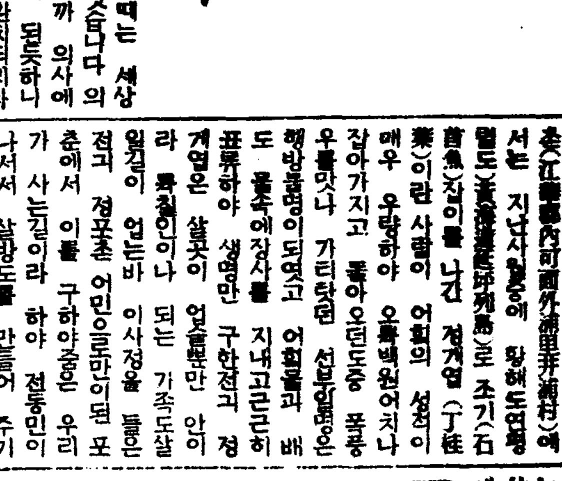
【江華】강화군내가면외포리정포촌(江華郡內可面外浦里井浦村)에서는 지난사월중에 당해도연평도조기(石首魚)잡이를 나간 정개업(丁桂業)이란 사람이 어획의 성적이 매우 우량하야 오륙백원어치나잡아가지고 돌아오든도중 폭풍우를맛나 가티탓든 선부일명은 행방불명이되엿고 어획물과 배도 몰죽에장사를 지내고근근히 표류하야 생명만 구한전긔 정개업은 살곳이 업슴뿐만 안이라 륙칠인이나 되는 가족도살 일길이 업는바 이사정을 들은 전긔 정포촌 어민으로만이된 춘에서 이를 구하야주는것은 우리가 사는길이라 하야 전동민이 나서서 살방도를 만들어 주기로하얏다는바 지금과가티 극도의 리긔주의만이 팽창한 시대에잇서서 이가튼 미담은 일반군민들의 충동이자자하다고한다

美容實演映畵會

동경상미당마스타향장품본포(東京美容美彦마스타化粧品本舖)에서는 예용자우메를로나하고 지난 삼십일서울에서공연한 하로두회에나노아 시내태평통 공회당에서 미용실연영화회를 개최하엿든바 다시게속하여 다음과가튼일정으로 각지에서 공연하라라고한다

大邱 六月一日 釜山 同二日

仁川 同四日 平壤 同五日



(사진은 선전원일행)

法院出張所主任 印紙詐欺事件綻露

檢事出動 司法書士等을取調 —事件去益擴大形勢—

【淮陽】현직경성지방법원회양출장소주임(現職京城地方法院淮陽出張所主任) 주정원단(村井元旦)은 인지사기사건이 탈로되여 경성지청 미원검사(米原檢事)는당지에 출동하여 지난 이십팔일부터 사일간을두고 각사법서사와 기타 고용인까지 모조리엄중한 조사를하엿다는데 사건은 극비밀에 부치므로 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 의하면 전긔주정은 수년전부터 등긔서류(登記書類)에 붓친인지를 계속적으로 갈죽가리 떠여가지고 사법서사인들에게서 금전을 채용하고 인지로 준것이 그만끄리가 발피것이라하며 사건은 어데까지 확대될지 비상한주목을 끌고잇다한다

大盛況이豫期되는 裡里의端午노리

本報裡里支局主催

【裡里】본보리리지국에서 거행하는 년중행사의 하나인 오월단오노리는 오는 륙월이십삼、사、오일(음력오월오、륙、칠일)삼일간 리리읍 경정광장(리리금융조합엽헤)에서 매일밤낫으로 이회식 개최하리라는바 리리에잇서 더자주천녀회는 작년오월 단오절에 본보리리지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결과 예상이외의 절대성황을 일우엇슴으로 금년에는 좀더 충실히하야 일반가정부인과 직업부인들을 위한 단오노리와 남자씨름대회까지 열게될것이며 밤으로는 조선일보독자위안영화대회까지 잇게되리라는바일반인사기는 발서부터이노리로 집중되야 당일의 성황은 물론이요 일반은 손꼽아가며 단오날을 기다리는중이요 상은 다음과갓다고한다

賞品…男子部一等 黃牛一頭 二等부터 五等까지副賞

女子部一等 純金반지 二等以下參加者全部

農作物被害莫大

鏡城地方에도怪候

【新市】군일평북귀성지방 일대에는 아침과저녁으로 매우쌀쌀한찬바람이 불어서 농민의마음을 불안과공포에 울게하는전후가 날마다 계속되여 『금년에나 풍년이들것지?』하든 그들은 실망의수미(失望의愁眉)를 펴지못하고잇다는데 이와가티 한달동안만 계속되면 필연적으로 발육이안될뿐만아니라 심하면 절멸을당할념려가 잇다고 노인들은 매우 공포에싸여잇다는데 현상으로보아도 소채류는 전부랭해를바더 고사(枯死)하엿다하며 묘(苗)의발육도 이에따라 발육이 매우 불량함으로 이앙기를압둔 평북귀성일대의 농민과 주민들은 금년에도흉년을 미면하리라하여 일반적으로 전전긍긍하는 상태에잇다는데 이와가티 천후의불순으로 농작물의피해가 잇게되에따라 일반상인에게까지 그영향이 막대하다고한다

腰折病猖獗 棉作全滅

平南道調査着手

【平壤】강우량이 적어서 평남각농촌에서는 큰소동을 일으키고잇는 이때에 룡강(龍岡)강서(江西)중화(中和)대동(大同)등남부각군의 면작(棉作)은 요절병(腰折病)이 창궐하여 발아중에잇는 목화나무가 전멸상태에 빠지엇스므로 평남도 농무과에서는 긔술원을 사처에 파견하여 조사에 착수햇다

菜蔬等全滅、秧苗發育不良

이병은 습긔가만코 긔온이찰때에 발생하는것으로 구제방법은 전연업스나 쾌청이 계속하고긔온이놉하지면 자연히 바로서는터이므로이것을바랄뿐이라한다

載寧郡銀龍面에 棍棒強盜出現

布木其他强奪

【海州】지난오월삼십일오전이시경 재령군은룡면룡지리삼십구번지(載寧郡銀龍面龍池里三九)주류업자 리동식(李東植)(六〇)방에동면에사는 김두형(金斗亨)이가자고잇슬때 괴한두명이 침입하여 곤봉과단도로협박하우에 현금구십전목인(木印)한개회중시계한개 무명세필을 강탈하여가지고 도주하엿다는바 급보에접한 재령경찰서에서는 범인을 엄탐중이나 아죽행방이 불명하다고한다

五十年來初有의 石首魚大豐獲!

只今까지에二百萬圓을突破 今後도繼續漁獲豫想

【海州】연평도의 조기어획이대단한풍년을 일우고잇다 함은 보한바어니와 그후로도 예상이 적중하야 지난이십팔일까지 삼조간(三潮間)의 어획고는 실로 일백삼십만원을 돌파하는 성황을 일우워 오십년래의 대풍획이라하며 각어선들은 말할수업는깃븜에 차잇다하며 그리고 초어기(初漁期)는 례년과가탓스나 금변의 례에업는 치원로수온(水溫)이 아튼관계상 어긔가 연장될모양으로 금번조수에도상당한 풍획을 긔하고잇다는바금변중의 어획고는 이백만원에달하리라고 예상된다하며 최근어획고의 성적은 일척당천고 삼천원 최저가 칠팔백원으로 평균일척오륙백원에 달한다고한다

地方人事

▲井坂圭一良氏(前全北警察部長)平南警察部長轉動人事次本報全州支局來訪

▲朱榮德氏(前慶南道參與官)平安南道參與官 轉動人事次 本報釜山支局來訪

▲丹下郁太郞氏(前慶南道警察部長)總督府警務局保安課長 榮轉人事次 本報釜山支局來訪

▲白石光治郞氏(平南道內務部長)新任人事次平壤支局來訪

▲安晋吉氏(郡書記)新任人事次本報井邑支局來訪

▲伊藤倉富氏(醴泉公普校長)新任人事次本社醴泉支局來訪

▲平塚齊氏(醴泉公立農業實修學校長)同上

▲西村清正氏(同校教諭)同上

▲劉在鳳氏(永高公普訓導)北靑公普轉勤人事次本報新興支局來訪

▲晋炎鎬氏(牙山郡守)赴任人事次本報牙山支局來訪

▲朴在權氏(江陵税務署直税課長)新任人事次江陵支局來訪

◇寫眞…同校新舊職員一同

在奉初等學校巡禮記 【二】

吳家荒普校篇

校運自初로平坦順路 諸般設備比較的充實

學父兄의좀더奮發要望……

東明校를뒤로두고 奉山線鐵路를 여매끼고 十五里가량거르니 西便으로 茫茫한曠野에 커다란村落이 버려지고 洞口에 기다랏케느러선煉瓦建物이 눈에 띄인다 이建物이在滿朝鮮人社會의 만흔人才를 길러보내준 吳家荒普通學校이다 이學校야말로 奉天에잇서서 그중平坦한 順路를 밟어온 學校이요 現在에도第一充實한 學校이다 大正七年五月에 當地基督敎會에서 敎會室을 臨時校舍로 地方有志와 合力하야 信興學校를 創立하얏든것으로 當時校長安君畏氏와 敎員尹滿龍氏가 活動한結果 昭和五年에 學校組合을 設立하고 地方住民의 義捐과 有志의同情을 維持하야왓스나 日復日느저가는 學齡兒童을 收容할敎室이 狹窄하야 困難하든바 同校職員一同과 有志諸氏가 各方面으로 活動하야 東亞勸業株式會社와 奉天居留民會에서 莫大한補助를밧고 地方住民이 義務로醵出하야 同年七月에 三千三百圓의 工事費를드려서 現在의書齋한 校舍를 落成케된것이라고한다 運動場도 二千餘坪이나되고 學校는大大的으로 發展되는同時에 同年六月에는 校名까지變更하야 吳家荒普通學校라고하엿다 同八年四月에는 吳家荒에서 相距하기五里쯤되는 大石橋學校와 併合하야 大石橋에는 分校를 두게되엿다 만해를 지나오는동안에 敎育熱은 高潮되여 그럭케크든 校舍도 오히려 狹窄하게되여 一千六百圓의 工事費를드려 敎室을 增築하엿다 그러나 이곳에 記者가 입을여러 한마디하지 안이치못할事實이잇스니 吳家荒은 東亞勸業株式會社奉天農場가운데 第一安全地帶요 뿐만아니라 土地가 肥沃하기로 엄지손을 꼽을만한곳으로 每年農形이 豐登되여 우리同胞의 生活도 어느程度까지保障되여잇는곳인데 反하야 子女敎育機關인 學校에 對한 熱誠은 다른곳에 조금도 나흔點이업다 오히려 勸業會社나 學校組合만을 依賴하는感이 업지안타 그러타고하야 아조 學校를 依賴한다는것은 안이다 生活程度에비치여보면 다른곳보다 優越하지못하다는말이다 學校의 設備나 內容에드러가보면 괜찮지만 其實內容은 歉缺하나가어슴을보고는 두구나솔솔한마음을 금하기어렵다 바라건대이곳의父兄諸位는좀더學校에對하야誠心을다하야주시이다 오늘날에 이따에까지 흐르게되原因도 우리先祖가新文明을輸入할줄모르고 子女의教育을 넘우나 等閑視하엿든것은 가말하지안허도 오히려 여러분이 더잘아시실줄밋슴니다 우에도 記錄하얏지만은 이學校의功勞者이시요 吳家荒에 綜合의役割을 다하시든 참다운指導者이신安校長 黃先生兩氏는 數日前에 事情으로하야 辭任하고 이곳에게 시지안어서 뵈옵지못함을 크게 遺憾으로 생각하엿다 記者의吳家荒行脚에 多忙한중에도不拘하고 案內하야주시고 參考資料를 만히提供하야준 現校長李大禧氏에게 感謝하을말하고 校門을나서니 눈가는廣天의西쪽에 太陽이反射되여記者의눈을흐리게한다

在籍生 三百名　卒業生 八十名　現校長 李大禧　敎員 六人　學級數 六年制七學級

安東縣 陸上競技大會

▲時日 六月七、八日

▲場所 安東縣六道溝運動場

◇主催 安東縣朝鮮人體育會

◇後援 朝鮮日報外各支局

新京 唱劇團公演의밤

▲時日 六月四五兩日間

▲場所 新京記念公會堂

◇主催 唱劇團巡演部

◇後援 朝鮮日報社新京支局

平壤 朝鮮中等校庭球大會

▲時日 六月十日午前九時

▲場所 平壤醫專코ー트

◇主催 平壤醫專庭球部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開城 全朝鮮懸賞音樂大會

△時日 六月十三日午後八時

△申込期日 六月十日午後五時까지

◇主催 高麗公論社

◇後援 朝鮮日報開城支局

◇場所 高麗青年會大講堂

"米穀統制目標" 專賣制로歸着?

㊂ 申泰翊

그러므로 大正七八年以後부터 米穀政策은 비로소 積極化하는同時에 그의 中心點은 어떠케하면 米不足을 補充케하라는 그增殖에 잇섯다 따러서 朝鮮의 産米增殖의 目的은 日本內地의 食糧不足問題의 解決를 圖하라는데서 出發한것은 다시 말할것도 업다 이때문으로 그當時에는 米消費者의 生活를 威脅하는米價를 막으라는곳에 注力케되엿슴으로 朝鮮米移入에 對하야 雙手를 드러서 歡迎케되엿든것은 必然의 理이엇다。

×

그러나 昭和四年에 이르러 以上과가튼 米穀의 實情은 一大變化를 보지안흘수가 업게되고 말엇다 即 日本內地에 잇서 米不足은 反對의 米過剩狀態로 轉換되야 米價暴落을 招致하엿든것이다 이것은 무슨까닭이엇든가 하면 두가지의 理由를 들게된다

(一) 昭和四年으로부터 시작된 世界恐慌 그中에잇서 世界的으로 農業恐慌도 深刻化한點

(二) 昭和五年의米生産量은 日本米六千六百萬石 朝鮮米一千九百萬石으로 모두 朝前의大豊作을 보게된點

이와가티 米不足에서 그過剩으로 一轉케한事情은 두가지點이잇스나 다시 이것을한말로 表示한다면 그主因은 米消費激減에 잇섯든것이다 왜그러냐고 하면 歐洲大戰의 結果 好景氣가 極度에 達하야 米消費高가 激增하엿든것이 그好景氣反動의 不況으로 도라옴을 따러서 米消費도 反減의 結果를 나타내이고 오즉 대망칠 昭和五年과가튼 大豊作은 그反動의 轉換期를 더 促成케함에 不過하엿든것으로 본다 即

▲日本內地의 一人當米消費는 大正八年에 一石一斗二升四合이엇든것이 昭和八年에 一石一斗一升의 減少를 나타내엿다。

×

그래서 이때까지 米穀政策은 그 數量을 만케하여가지고 米價騰貴를 막으라는 目標에서 漸次 머러지는 길로 드러스기 비롯하고 따러서 一面으로 米過剩으로因한 農民의打擊을 考慮치안흘수업는境遇를 나타내다 이리를 이여서 昭和八年의 再次米豊作을 보게되야 米生産過剩은 深刻化하고 따러서 結局 米穀政策은 全面的으로 完全한 轉換期가 展開되엇다 即

◀昭和八年米生産=日本米는 七千萬石으로 昭和五年豊作以上의 未曾有의大豊作이엇고 또 朝鮮米는 一千八百萬石으로 昭和五年에 다옥가는 豊作의數量이되엇다

이結果 米價는 暴落으로 農家經濟에 依하야 農業恐慌을 招하고야 말엇으며 米穀政策은 不得不 一大轉化를 보게된 命의것이 되고말엇다 이처럼 米穀事情이 從來 米不足으로因한 食糧問題의 對策은 何等의必要가 업게되고 따러서 米價騰貴를 防止하는 對策에서 米價暴落으로因한 農民의打擊을 防止하는 對策으로 도라스게되여 即 米穀政策은 이때로부터 全面的 米價高政策을 내여걸게되엇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農村經濟를 威脅하는 米價暴落을 막고 벌수잇는데로 어느程度까지의 米價高를 保持하라는곳에 그主眼點을 두게된것이다。

×

그때문으로 進行中에 잇든 朝鮮米增殖의 長期計劃을 中途히 中止하여버리고 또는 大正十年으로부터 施行하여오든 米穀法을 버리고 昭和八年에 米穀統制法이란 新法律을 制定實施하엿다 이로서 米過剩으로因한 米價暴落의 阻止에 米穀統制法이 定實施되엿다 · 以上이 지금까지 거처온 米穀統制의 過程을 大體로 본것이다 그런데 오늘에잇서서 米穀統制法이 繼續하야 施行되고잇슴을 不拘하고 다시 米穀自治管理法을 日本內地의 特別議會에서 通過케된것은 그眞意가 어느곳에 잇는가 하는 이것을 看過할수업는 點이다 「ㄱ(續)」

朝鮮米移出激增 五月百十萬石

中間端境期의 新記錄을出現

◇……最近米價高影響

最近米價의 昇騰과日本內地의 買氣에刺戟되야 朝鮮米의 輸移出이 活況을 呈하고 五月中輸移出高는 百十一萬一千石으로 五月의中間端境期로서는 記錄的大量에 達하엿다 이것을 前年同月에 比較하면 四十六萬二千六百七十二石의 激增이다 新穀以來의 累計는 七百六萬二千四百七十四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十三萬二千四百二十六石의增加를 示하엿다 (以下單位石)

◇米輸移出

	今年	前年
五月中	一、一一一、一三六	六四八、四六四
累計	七、〇六二、四七四	六、九三〇、〇四八

◇米輸移入

	今年	前年
五月中	一四、〇〇一	一〇、三三六
累計	八〇、五三七	九〇、三二一

米價暴騰을出現

公定價接近으로警戒

二重凶作의 뒤를이어 日本內地低溫으로 三重凶作의 人氣高調로 天井不知의 勢로 뛰는 期米는 二日은 大阪先限 三十一圓九十五錢에까지 暴騰되엇는데 最高公定價接近으로 警戒人氣濃厚이엇고 各地正米一齊暴騰、京城公設市場 白米價引上이잇섯다

自治管理 諸施設費

自治管理法은 施行되드래도過剩米가 發生치안흐면 同法의發動되지 안흐나 同法의 發動如何를 不拘하고 統計組合의設置等諸施設은 不選 決定할러이며 그項目은 다음과가티 經費總額은 六十六萬二千圓이 計上되엇다

一、事務費及俸給=米穀課新設을加하야 九萬四千圓

一、倉庫新設費=四千坪二十二萬四千圓

過剩米가 發生하야 自治管理法이 發動될境遇에는 利子補給保管補助等으로 十一年度에 六十九萬四千圓을支出

一、統制組合設立補助=二百組合으로 十一萬一千圓

一、資料調査費=所謂米穀三大調査費로 十九萬三千圓

米生產費調査 農林省技師渡來

農林省米穀局技師 鄉勝三郞氏及技手關辛夫의 兩氏는 六月七日朝鮮에 渡來하야 八日로부터 一個月間 朝鮮內 各地의 米穀生產費調査狀況을 視察調査키로되엿는데 右兩氏는 朝鮮總督府農林局兼務로 同氏等의 視察調査에依하야 日本內地 朝鮮間의 生産費調査에는 協調連絡이 保持될것이라고한다

豆煉炭合同

日本內地의豆炭合同은 總督府의 斡旋과 合

朝鮮商議總會 全部十一個議案

旣報한바와가티 朝鮮商工會議所第五回定期總會는 豫定과 가티 今月十六日 京城商工議 會議室에서 開催키로된바 全朝鮮各地十五商工議中 開城、平壤、大田等三個所에서는 提案이업섯고其外十二商工議의 提議案을보면京城、大邱兩商工議의 共同提案인工藝指導所 設置에 對한建議等 山의 工業學校 設置要望、全州의第三種所得稅方法改訂要望、淸津의茂山鐵鑛開發과 製鍊所設置에 對한要望、鎭南浦의 第三期築港 實施에對한要望、咸興의中小商工振興 施設에對한 要望、新義州의實業教育改善及擴充要望、元山의滿洲國關稅率改訂에 對한朝鮮側의善處要望 木浦의港灣의海陸連絡施設完備要望 仁川의 北中重要地에의 直航貿易關係機關施設要望、群山의 氣象觀測施設擴張整備에對한 要望等 茂多의要望이各所로부터 提議되엇다

同無煙炭會社의 從憑에依하야第一次의 部分的合同을 하기로되고 目下入京中의 安宅商會石炭部長 安宅武氏를 中心으로 總督府에서 無煙炭會社側의 人見、加藤兩重役間에協議中인데이第一次合同에는 三井系의 三陟商會를 빼여노코 宅安商會의 大阪名古屋、東京의 各工場과 三菱系의 十全商會 四工場의 合同으로 同合同成立後 漸次 地方業者의 吸收合同을할豫定이라고

金價引上後 朝銀買入激增

五月中二百六十萬圓

金買上價引上後의 朝鮮內의金移動狀況에 就하야 總督府殖産局에서 調査한바에 依하면 從前地金商에 出廻되엇든것은 日本內地方面에 積出이 主要한것 이엇는데 右引上實施에 伴하야朝鮮銀行에 가저오는것이 激增되엿다 今後 朝銀에가저온金을 前年同期와 對照하면 (單位키로그람)

	今年	前年
一月	二二一	一八
二月	二二一	三六
三月	一八一	四〇
四月	四〇	四八
五月	七五〇	五五

으로引上實施에依하야 從前의日本內地持出乃至密輸는 激減되고 朝銀에가저오는 것이激增되엿다 이라한다(寫眞은朝銀地金係窓口)

春繭初取引

沼津、濱松모다高價

內外養蠶家와 繭業者의 視聽을集中하던 沼津春繭初取引은 三十日午後一時十分부터 開始된바 記念할 第一聲은 五圓二十八錢으로 午後二時十分까지의 市勢는如左하얏다 (單位圓)

	高價	低價	掛目
黃繭	五、元	四、五一	三五
白繭	五、三〇	四、六六	—

取引高 黃六六口、白六口 最近五個年間의 沼津市場初繭市勢는 如左하다

◇黃繭

年次	高價	低價	掛目
六	二、八一	二、一〇	二二
七	三、〇三	二、〇四	二九
八	五、五七	四、六八	四三
九	三、二六	二、〇〇	二二
十	五、一一	四、二三	三四

◇白繭

年次	高價	低價	掛目
六	二、六一	二、五九	二二
七	二、六七	二、二〇	二二
八	五、四一	四、五一	四二
九	三、〇九	二、五九	二四
十	四、九一	四、三六	三五

×

【濱松發電通】 全國의 白繭標準市勢를 樹立할濱松繭市場은 一日午後二時十五分부터 初取引을開始하얏는데 濱名郡和田村出田의白繭一貫八百匁貫當四圓十四錢이란 意外의 低價로落札되엿는데 大口側은 橫濱絲況을 睨하고 一向買進치안코 場의空氣沈滯味이엇스나 五時에 白繭十九貫五百八十匁의 優秀繭이現하야 五圓十錢의 新高價를 示現하얏는데 取引高二千二十七貫高價五圓十錢 低價三圓八十九錢掛目三十五掛이엇다

蠶絲業關係三法

統制가一步前進

⑧ 經濟關係法解說

懸案의 一인重要農業立法中에 蠶繭處理統制法 蠶絲業法中改正、蠶絲組合法中改正法의 三法은 昨年의 騷動을이저버린듯이 十一日衆議院本會議에上程된後 貴族院을 通過하기까지 겨우十日間、衆議院委員會의 開催도 昨年의 十七回에比하야 이번은 다만四回에不過하야 스피드로 通過되엇다 아모리 非常時特別議會이오 戒嚴令下라고 할지라도 議員의態度가그러케 變할수잇슬가?

×

그런데는 깁흔 理由가잇스니第一은 法案을 默殺식히어蠶本의 威力을 遺憾업시 發揮한 大製絲家의 態度改變이엇스니 그反對緩和가 庶政一新의 非常時的認識에 基因한것이라면著하나 經濟的利害關係가去年과 今年과는 대단히틀니때문이니 即製絲家의 蠶繭處理統制法에對한 反對는主로서 特約取引이 認可制로되어 自由奔放한 장사를 할수업는터로 그準備가업던 昨年은 이方面에 新進出한 鐘紡을 筆頭로猛烈한 爆擊戰을 展開하얏스나 그結果一年間의 猶豫가잇서 法律施行에對한 準備가整備되고 政府當局의 態度緩和와相俟하야 거의影響이 업슬만큼 好轉된때문이다。

×

試컨대 昨年의特約組合發展을보자! 組合數는 昭和九年의 二八、一一九로부터 十年에는 一躍 二千餘가 增加하야 三〇、三〇三이되고 組合員數도 八三九、五三五人으로부터 八九二、四五七人으로 五萬餘人이 增加되엇다 이數字가 무엇보다도 明瞭히 此間의事情을 말하는것이라겟다 (此項終)

金組積金利下

金融組合의 定期積立金掛金改訂은 貯銀의 積金利下方針이決定되엿슴으로 이에追隨하야 利下키로되고 目下認可申請中인데 利下率은 三年滿期百圓에 對하야 月掛金二圓六十四錢을 貯金과 가티 四錢引上의 二圓六十八錢으로改訂하고 七月一日부터 實施할을決定하엿다 그러고 이것과同時에 從來의 三年滿期以外의定期積金을 廢止하야 새로히 二年滿期의定期積金을新設定하고 月掛金四圓二錢으로決定하엿다고한다

魚油不定量入札

六月分三圓六十七錢

六月分魚油不定量入札은 三圓六十七錢으로서 合同油脂에落札決定하엿다고

經濟彩鐵

『明日의 專賣』를指標로 專賣事業 進展에 힘썻다는 安井前 專賣局長

○

京畿道知事로 新任 [illegible]『中小商工業振興』方針 披瀝

中小商工業은 振興보다 救濟、明日보다 今日의 問題임을 알고 專賣局長時代 솜씨를 보이어 주소

經濟界消息

○商店經營講演會=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京城小賣商店界의刷新과 改善을 圖키爲하야 이번 商店經營研究所長 淸水正己氏를 招聘하야 六月十日午後八時부터 長谷川町公會堂에서 商店經營講演會를 열기로 되엿다고

取引停止 (五月九日)

▲京城府林町八二番地 嚴基德 ▲酒類卸商 京城府笠井町七四番地 朝鮮商會員 韋鉉

商況(二日)

株式 日產高로反高

前場少戾

今前場은 利喰買와 追擊警戒로下支되어 少戾이엇스니 即昨後引에 比하야 東新八十錢高인 一日三十圓八十錢 鐘新 二十錢高인 七十一圓丁、日產 二十錢低인 百五十五圓二十錢、朝新二十五圓九十錢 新 二十圓五十錢에 各大引

後場反高

後場은 東新百三十圓九十錢、日產七十一圓六十錢 大新七十四圓丁 朝新二十六圓丁에堅强寄後 日產七十三圓에 올는고 東新도 一圓三十錢이잇섯다

雜株高로下支

北中關係念慮 生絲六百圓台危殆 吉村投賣等으로 昨日崩落되려이나 今前場은 軍需株等其他雜株에 部分高를 呈한때문에 東新도 下支되듯하다 對中政策積極化와 來年度豫算의 大膨脹에期待를 가지기도하는 모양이나 增稅의 限度如何 統制經濟의深度如何에依하야는 再次不安에陷할念慮가업지안흘뿐아니라 投機熱이 徹底한때이니만큼 强氣의處地는 苦難이며 突込이잇슬與否가 注目되엿다

新動機가必要

昨後場東新百三十圓割(當地)이잇섯스나 東京大阪이 안깨지는때문에 今前場은 底强한듯하얏다 弱氣래도 百二十圓再割을 目前에期치안는모양이며 小市勢觀이 再擡頭할 形勢로 總氣迷에陷하얏다고도 볼수잇는바 材料를가지고보다면 大變革을 이미織込한 二月事件市勢까지 잇섯슨즉 이以上의悲觀은 絕對不要이오底

肥料業統制法

—(承前)—

專賣案議院 委員會에서는 이點이論議의 中心이되어 硫安生産費는 幾何가妥當하다고認하느냐 公正한販賣價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追究하얏다 그結果商工省으로부터 會社의 數字그대로라도 說明附로示한 硫當硫安生産費는最高八十七圓七十錢最低七十三圓九十錢平均八十圓五十錢이란 常識以上의高價이엇다 이것도現在의硫安配給價보다 相當低下되어 現在如何히會社가 暴利를取하고잇슴을알수잇는데 更히小川商相의 說明을 들으면『公正한價格은 生産費만가지고 定하는것이아니다 物價其他의經濟事情을參酌할것임으로 그때그때가아니면 무엇이라말할수업다』라하야 그럴듯하나 米穀統制價格과가티 嚴密한基礎下에行하지안는限 不公正한價格決定이되기쉽다 더군다나 硫安의現狀은 供給이적다 그럼으로生産을百廿萬噸!百七、八十萬噸으로增加함이必要하다면 不良工場까지라도廢棄할수업고 從야 그價格도크게引下가될수업슬것이다

×

이런것저런것을생각하면 運用特히販賣價格決定如何로 法의善惡을決定케될것이로 島田農相、小川商相은 異口同聲으로나곤言明해달나고하얏스나 農林、商工兩省의 共管에關한 만큼 지금까지의對立과意見相衡이잇서서는 아모것도안될것으로 兩相을信賴하는대신 정말効果를내게하야달나고 農民은切實히부르지고잇다 (終)

積極性發見難

昨年六月은 産業界不況으로 諸株一齊暴落한商情을呈하고 商品界도 沈淪되엇섯는데 昨今의動向을보면 今年도그러케될것이아닐지念慮가不無하야 조곰도積極性을發見할수업슴이 걱정이라고 탄식하는사람이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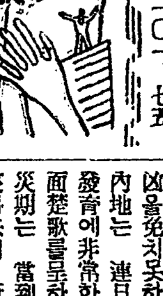
實物前場取引

▲日滿아루미(配當落) 一九、〇〇 ▲또렷치鑛業 三〇、〇〇 ▲滿洲煙草 三三、三〇 ▲朝日鑛業 一、三〇 ▲浦賀船渠 八、二〇 ▲石川島新 四六、三〇 (取引高一〇〇枚)

東京國債市場

一回四分利 一〇一、七五

市場六感



㊑……東京東新 百三十圓十錢、當地 東新 百二十九圓六十錢에까지 떠러지고 今前場은 東京百三十一圓三十錢 當地 百三十圓八十錢으로 下滋少戾▲잘안떠러지니 버틔니 底强하다 할가 어지로 버틔니 一層不良타할가▲當地는 目前强氣가 制벋만하니 百三十圓割로 人氣沮喪하야强字는 解消된모양▲얼른 速히 百十九圓三十錢을 割할것갓지도 안코 百四十圓以上으로 速히 올를것갓지도 안으니 무엇을 먹겟다고 强弱間 기운내서 떠들것이 업다는말도잇다▲나려말하라면 東新은 사기도 실코 팔기도실타

㊎……昨後場의當地形勢는바로 又復一高를 示할뜻하더니 今朝에入하야는 依然伸惱▲先驅的高價를示한後인만큼 高에隨應치아니함은 人氣作用의 自然한現象이엇다할지라도 그此에서 低落이엇다할지라도 그程度를 可知이니 참아리押目買가得策?▲今月부터는 天氣의如何를 注目하게되나 아즉도乖候는繼續?▲今日東京의 溫度는 昨年同期보다 一度高이나 大阪은 三度低 當地는 曇天▲이樂天的 好雨量이來할것인가 日本內地의低溫도 漸次恢復될것인가 此가注目꺼리

前場伸惱 米期 伸惱後에反落

昨後場阪地三十三圓八十九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三圓八十錢인 一丁反落을 반영하고 三十一圓八十錢인 亦一丁低로 寄付한後 阪地三十四圓丁까지跳返하엿다가 結局三圓九十三錢으로 反落止場함을 因하야 九十五錢까지 昂騰하엿다가 八十一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反落

後場은 三十一圓七十九錢에 二丁低로 始場後 五節七十錢에 反落이고 六節六十八錢으로 六十九錢에 止場하다

天災期는當到 場面宛然活卓

今月은 日本內地及 朝鮮을 不問하고 植付를 完了하는 一年中 가장 肝要한 時期이다 朝鮮의 秋板發育은 比較的樂觀이라할수잇스나 挽近雨量의 不足으로 反히 悲觀을呈할뿐아니라 植付의用水不足을 念慮하게되고 麥作은天凶을免치못하는 狀態이며 日本內地는 連日氣溫의 低下로苗代發育에非常한 打擊을與하야 四面楚歌를呈하는모양이다 天災期는 當到하엿다 果然天來와共히 誕生한 八限戰에入하면서 場面은宛然히 活卓의觀을呈하야 將次大波瀾을 捲起할兆朕을보이고잇다 그런데今日의天候는 當地는曇天、日本內地는東京小雨、大阪快晴、氣溫은東京은例年同期보다 一度高、大阪은三度低로 아즉도天候가 完全히 恢復되지못한모양인데 此現象으로幾日間더 繼續한다하면 市勢의又復一高를 豫期할수잇다고云云

當地幾分伸惱 値頃의關係로

昨後場 阪地先限 三十三圓八十九錢인 新高價를 示現하야 上場하지못하엿슴에도 當地는 實氣意外旺盛하야 當限은 三十一圓五十錢 中限은 三十一圓六十錢 先限은 三十一圓八十九錢으로 暴騰하야 阪地보다의 先高的行動을 하엿다 今朝에入하야는 阪地三十四圓丁으로昂騰하엿는데도 當地는 値頃關係의 警戒로 幾分伸惱의 狀態를 呈하다 勿論 一擧昇上으로 上騰과 共히 七十餘丁의 反撥을 示한 後이라 一服의 市勢도 엇지안흘뜻하나 그러나 此에서 떠러진다할지라도 正米의 實勢가 絕對低落을 不許하는 此際인만치 一服後에는 반드시 更新高價를 演出하고말것으로 觀測하는者 多하다 果如何?

堂島期米好調

【大阪電話】 期近實方의 煎續出에 對하야 買方의 利喰賣物로 取引이잘되지안코 當限은 新高價示現이나 高價警戒로 期近高에 逆行하야 伸惱氣味이엇다나 종에는期近에 買物不熄이오 先限도 追隨高를 示하야 四圓台乘을 演하얏스나 價位觀의警戒와賣物로 四圓台를 割下키에至하얏스나 相場은 底堅이엇다

各地正米

實方 三木 中東側 朝鮮側 東京側 乘換
買方 株式側 正米側 地場強

京城昂進

期米去益好勢를 强調함이엇다 三十錢昂進이오 더욱 돋고唱은 丸仁三等三十一圓十錢 四等三十圓八十錢 一等白米二十二圓五十錢

仁川昇騰

品薄高를 依然反映하야 依然買氣旺盛이오 實物薄으로 顯著한取引은 되지안하다 丸仁三等三十一圓十錢 四等三十一圓八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釜山反撥

移出商은 探算不合으로 積極的으로 買氣를 보이지안흐나 地場實需의好買進續으로 市勢二十錢引締인 角구三等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一圓六十錢 一等白米十二圓九十八錢

大邱强堅

期米는 新高價를 示現하야 强調를 呈하고 高價警戒와 價位觀으로 市況은 閑散裡에 推移되엿다 角구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圓二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五十錢

群山續騰

定期가 去益騰高되고 月初인만큼 場面은 實物拂底이오 取引은잘되지 안하며 唱은 先走狀態로 更히 十五錢續騰인 菱久三等三十一圓三十錢 四等三十一圓十五錢 一等白米十三圓丁

木浦上伸

定期가 强한만큼 日本內地는 買付치안흐나 移出側의 買氣旺盛으로 更히 十錢反撥을 告하얏다 丸木三等三十一圓三十錢 四等三十一圓丁 一等白米十三圓丁

今日財界 (二日)

◆金融二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錢價 ◆京城市中金融價 ◆米穀二日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商品二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綿布 ◆綿油沖價 ◆綿粕沖價 ◆카카五期變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株式二日 ◆朝鮮短期 ◆朝鮮短期實買高 ◆東京現株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期米二日 ◆朝取期米 ◆朝取期米實買高 ◆朝鮮內各地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正米標準價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錢) ◆商品二日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東京人絹現物 ◆大阪砂糖 ◆海外砂糖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株式 金益證券 京城 金益證券株式會社

米 仁川 康益商店

株式 期米 玉 柳來植商店 仁川府本町

株式賣買 東 東亞證券 案內書贈呈 京城黃金町

仁川 期米 福 吉村取引店

德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取扱 送料先方負擔 電話本②3939 振替京城2334

土金 石福 金 高價買入 石福鑛業株式會社 金.銀.白金.地金部